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영 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감성교육을 위한 도예 프로그램 제안

- 중학교 미술교과서 및 도예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

201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송 희 진

감성교육을 위한 도예 프로그램 제안

- 중학교 미술교과서 및 도예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

박 영 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송 희 진

인 준 서

송희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도예는 입체표현미술로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미적 정서와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생활인으로서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역이다. 청소년기에 체험하는 감각적·직접적인 경험으로 실현되는 도예활동은 미적 안목을 높이며 자연의 흙을 만지고 주무르는 직접적인 재료접촉의 경험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주기에 적합하다. 도예 활동의 주재료인 점토는 그 특성상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과 감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첨단 기계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흙이라는 자연소재는 그 성질상 정서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성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가소성이 뛰어난 흙을 이용하여 창조하는 활동은 감성을 풍부히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손으로 점토를 만질 때 느껴지는 촉각적인 활동만으로도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며, 미술치료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자유로운 창작을 통한 조형적인 도예활동은 창의적인 표현력을 기르게 하며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직업교육과 체험활동의 기회가 많다. 또한 체험활동으로써 도예교육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 좋다. 이처럼 점토라는 물성이 갖는 특징인 촉감과 가소성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발달을 가져다 줄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학교 미술교육에서는 도예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학생들의 경우, 지금까지 받아온 미술수업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미술활동을 떠올려보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자신이 만들어 직접 사용해 본 도자기 수업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꼽는 학생들이 많다. 재료 특유의 촉감과 가소성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사용 했다는 경험이 매우 흥미롭고 기억에 남았다고 언급한다.

도예 수업은 가마 소성이 필요하고 학교 안에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외부에 학생들의 작품을 반출하여 소성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미술활동을 제공하려면 교사의 성의와 열의로 이런 문제는 극복 가능하리라 본다. 초등학교에서도 도예수업은 대부분 외부에 가마소성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학교에서도 효과적인 미술수업을 위해 도예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성교육과 도예교육의 상호 연관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감성의 표현력을 자극하여 감성발달을 도모하는 도예 프로그램을 제안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선행연구들을 통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감성교육을 위한 도예교육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또한 중학생들의 도예교육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2009개정 중학교 미술 교과서 10권의 도예활동영역의 내용과 분포를 분석, 고찰하였다. 그 결과 도예기법을 설명하는 지면의 비중이 매우 적고 설명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한 도자제품을 만드는 내용이 창의적 표현을 하는 조형도예 내용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공예영역의 내용이 현대 도예에 관련된 내용 보다 많아 중학생들에게 도예수업이 전통적인 도자기나 컵 등을 만들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활동으로 이해되는 문제점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교과서 연구를 통해 중학생들에게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 보다는 감성교육을 겸한 조형도예 활동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발달단계에 적합한 효과적인 도예교육이라는 점을 밝히고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제안을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예 체험 활동의 프로그램들의 구성과 내용 등을 분석 고찰하여 실제 도예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살펴 감성 발달을 도모하는 실제적인 미술교육을 위한 도예 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도자공예교육의 전문가와, 중학교에서 특별 활동으로 도예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의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으나, 실제로 현장에 투여하여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가 아동기와 성인기 중간의 정서적·신체적 성장을 해 가는 중학생들에게 감성 발달을 이루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도예 교육의 활성화는 학생들의 표현력 신장뿐 아니라 다양한 미적 체험을 통한 감수성 풍부한 창조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 사회의 미술 속에서 오랜 시간이 걸려 완성되는 도예를 통해 인내와 균형 있는 삶을 경험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II. 감성·도예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1. 감성 교육	4
1) 감성 교육의 개념	4
2) 감성 교육의 내용	7
3) 감성 교육의 필요성	11
2. 도예 교육	14
1) 도예의 개념과 역사	14
2) 도예 교육의 내용	17
3) 감성교육을 위한 도예 교육의 필요성	21
III. 중학생과 감성·도예 교육의 상호관련성	24
1. 인지적 발달단계	24
2. 감성교육에 소극적인 공교육	27
3. 중학교 자유학기제	29

IV. 감성·도예 교육을 위한 분석	33
1. 2009개정 중학교 미술교과서 분석	33
2. 도예체험학습	57
V. 감성교육을 위한 도예 활동 프로그램 제안	65
1. 단원연구	65
1) 단원명	65
2) 단원 설정의 이유	66
3) 단원의 지도 목표	66
4) 차시별 지도 내용 및 전개	66
2. 차시별 학습 지도안	68
1) 1차시 학습 지도안	68
2) 2차시 학습 지도안	71
3) 3차시 학습 지도안	74
4) 4차시 학습 지도안	76
VI. 결론 및 제언	79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감성지능과 연관이 있는 가드너의 다중지능요소	5
〈표 2〉 미국 청소년 위험행동 조사결과	7
〈표 3〉 SEL 프로그램의 다섯 가지 역량	8
〈표 4〉 학교 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를 위한 감성교육내용	10
〈표 5〉 도자예술의 내용과 기법-성형	18
〈표 6〉 도자예술의 내용과 기법-장식	19
〈표 7〉 로웬펠드의 입체표현 발달 단계	25
〈표 8〉 자유학기 운영 모형 적용 예시	29
〈표 9〉 2009 개정 교육과정 미술교과서 내 도자공예 영역의 비율	34
〈표 10〉 교과서 내 도자공예 작품 위치 및 종류 분류	35
〈표 11〉 중학교 미술 교과서-(주)교학도서	36
〈표 12〉 중학교 미술 교과서-(주)금성출판사	40
〈표 13〉 중학교 미술 교과서-두산동아(주)	41
〈표 14〉 중학교 미술 교과서-(주)미래엔	43
〈표 15〉 중학교 미술 교과서-미진사	46
〈표 16〉 중학교 미술 교과서-(주)비상교육	47
〈표 17〉 중학교 미술 교과서-(주)아침나라	49
〈표 18〉 중학교 미술 교과서-(주)천재교과서	51
〈표 19〉 중학교 미술 교과서-(주)천재교육	54
〈표 20〉 중학교 미술 교과서-형설출판사	56
〈표 21〉 도예활동 일일 체험학습 현황	58
〈표 22〉 문경 도자기 박물관 망댕이가마 일정	63
〈표 23〉 도예활동 프로그램-단원명	65

<표 24> 도예활동 프로그램-지도 목표	66
<표 25> 도예활동 프로그램-차시별 지도내용	67
<표 26> 1차시 학습 지도안	68
<표 27> 2차시 학습 지도안	72
<표 28> 3차시 학습 지도안	75
<표 29> 4차시 학습 지도안	77

그림 목 차

〈그림 1〉 토제인물상	14
〈그림 2〉 크레타도기	15
〈그림 3〉 그리스 도기화 흑색상 · 적색상 양식	16
〈그림 4〉 러스터채	16
〈그림 5〉 뇌의 발달 과정	26
〈그림 6〉 집 만들기 활동 과 전통 박지기법 활동 작품	61
〈그림 7〉 도자기 핸드페인팅 활동 작품	61
〈그림 8〉 이미지연상을 통한 도자조형활동 작품	62
〈그림 9〉 창작 활동 작품	62
〈그림 10〉 문경 도자기 박물관-망댕이가마	64
〈그림 11〉 핸드페인팅 재료 및 고화도 유약	74

I.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정서적·정신적 만족을 충족시키기보다 물질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첨단 기계주의와 물질만능 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해져 있다. 첨단 정보기술의 발달과 지식 사회는 감성보다 이성에 치우쳐진 사고를 더욱 중시한다. 인격을 도모하며 감성과 이성이 조화롭게 발달되어야 하는 청소년 시기를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현실이다.

디지털 산업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개인의 감성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고, 교육계에서도 감성교육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별히 중학생들에게는 자율적·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가 증가되면서 중학생의 감성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예술적 창조 과정에는 참나에 이루어지는 영감이 중요한 구실을 담당하는데, 감성에 이러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예술을 통한 감성교육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¹⁾

도예 활동의 주재료인 점토는 그 특성상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과 감성 발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첨단 기계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흙이라는 자연소재는 그 성질상 정서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성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가소성이 뛰어난 흙을 이용하여 창조하는 활동은 감성을 풍부히 만들어 주기에 적합한 예술표현 재료이다. 손으로 점토를 만질 때 느껴지는 촉각적인 활동만으로도 소근육과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며, 역동적인 매체로써 미술치료

1) 김재은·홍순정, *창의성과 감성교육*, (창지사, 2012), p.3.

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육에 있어 도예교육은 시각문화의 화려한 이미지와 디지털 시대라는 사회 안에서 다소 초라한 이미지로 학습자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²⁾ 도예활동을 통해 감성표현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가능하지만, 가치와 필요성 인식이 낮아 대부분의 학교에는 도예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활동시간도 적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성교육과 도예교육의 상호 연관성을 논하고 필요성을 인식하며 감성발달을 도모하는 도예 프로그램을 제안 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감성교육을 위한 도예교육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와 체험학습에서의 도예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감성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 수업과 체험학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예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도자공예교육의 전문가와, 중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도예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의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으나, 실제로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않은 한계점이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미술교육에서 도예교육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중학생 시기의 감성교육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 뒤, 감성교육을 위한 도예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도예 체험이 중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시되고 이루어지는지 이해

2) 모인순, “미술교과서의 공예교육 분석-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Vol.9 No.2 (2013): pp.3-17.

하기 위해 중학교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현재 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술 교과서에 포함된 도예교육의 분량 및 내용분석을 통하여 도예활동의 가치와 실기교육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는지, 공예 중심의 편향된 활동만 제시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술관과 박물관 및 기타 도예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웹 사이트와 자료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예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교과서에서 조형 도예 활동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실기활동이 가능한 학교의 미술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방과 후 미술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써 가능한, 기타 체험학습 시설과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교육과 도예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알아본다.

둘째, 감성교육과 도예교육이 중학생 시기에 있어 어떤 상호 관련성을 갖는지 선행 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논한다.

셋째, 2009개정 중학교 미술 교과서, 체험학습에서 제시된 감성교육과 도예교육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Ⅱ. 감성·도예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감성교육

1) 감성교육의 개념

인간의 정신적 속성은 ‘지(知)’, ‘정(情)’, ‘의(意)’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별된다. 교육학에서 ‘지(知)’는 인지적 영역으로, ‘정(情)’과 ‘의(意)’는 정의적 영역으로 묶어서 다룬다. 인지적 영역은 지적기능과 관련된 학습의 영역으로서, 정의적 영역은 감성·감정 등과 관련되는 학습의 영역으로서 교육목표를 이룬다.³⁾

감성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과 대비를 이루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라틴어 ‘emotere’의 감성적 동적(動的)성질을 말하며 행동으로 나타내기까지 이어주는 의미를 함축한다. 새 우리말 큰 사전에는 ‘감각, 지각에 의하여 불려일으켜져 그것에 지배되는 심적·체험적 전체, 또는 인상을 받아들이는 힘’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보통 감정, 정서, 감성 이라는 용어들은 모두 유사한 개념으로 거의 구분하지 않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감정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용어이고 정서는 공적이고 객관성을 띄며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리고 감성은 주로 철학에서 이성과 대비되는 말로 사용되며 감정과 정서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⁴⁾

가드너(Howard Gardner), 셸로비와 마이어(Peter Salovey and John D.Mayer)

3) 김재은·홍순정, **창의성과 감성교육**, (창지사, 2012), p.3.

4) 상계서, pp.199-200.

는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⁵⁾’을 연구한 학자들이다. 1990년대 초 심리학자인 셸로비와 마이어는 정서가 주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감성지능’이라고 정의하였고, 자신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비판적 회고 및 자신의 감정에 대한 능동적 조절을 강조했다.

감성 교육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s theory)이 주목을 받으며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다중지능이론은 인간의 두뇌의 영역에 따라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신경과학이론⁶⁾을 바탕으로 하는데, 기존의 IQ가 광범위한 인간의 인지 능력을 설명하지 못한 점을 인식하여 인간의 지능은 한 분야의 능력이 아닌, 두뇌 발달, 인간 발달, 문화적 자극을 통해 발달하는 여러 분야의 지능으로 나뉜다는 이론이다.⁷⁾ 이것은 언어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논리수학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친화지능의 여덟 가지 지능인데, 이 다중지능이 감성지능과 관련이 있는 영역은 다음의 두 영역과 같다.

〈표 1〉 감성지능과 연관이 있는 가드너의 다중지능요소

연관성 있는 지능	특 징
자기이해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접근 능력, 감정들을 구별하는 능력 ·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며, 자신을 위한 삶의 진지한 목표를 세움 · 주변 상황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함

5) 감성지능(EI)은 정서지능 이라고도 한다. 김원중(2008)에 의하면 감성지능(EI)은 흔히 EQ라고 하는 ‘감성지수(emotional quotient)’와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EQ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읽어내는 지수로서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는 사회 적응 능력을 평가한 것이라 알려져 있으나 감성지능(EI)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 (위키백과, 2014, 재인용)

6) 정지은 외, **아이의 사생활**, (지식채널, 2009) p.179.
 ‘신경과학’은 뇌와 신경계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뇌를 포함한 신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나아가 인간의 마음의 작동을 과학적으로 밝히려는 학문을 말한다.

7) 상계서, pp.179-186. 재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의 전두엽이 손상되면 조증상태나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대인관계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과 교류하고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잘 이해함 · 대화할 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함 · 뇌의 전두엽이 손상되면 인격의 손상으로 대인관계 지능이 약해짐

이러한 감성적 특징들은 학교 교육에서 소통의 방식으로서 드러난다. 학급생활에서 소통방식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소통을 통하여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 뿐 아니라 소집단을 이루어 사회 경험을 하며 또래 문화를 배워가기 때문이다.

노상우는 그 소통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감성의 통로를 통해 상대를 느끼고 그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감응’ 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힘을 기르도록 자신의 감성을 인식하고, 그 감성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작용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감성교육’ 이라는 말로 개념화 하였다.⁸⁾ 이러한 감성교육은 아래와 같은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첫째,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
- 둘째,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
- 셋째, 타인의 감정과 느낌을 타인의 입장에서 듣고 이해·공감하는 능력
- 넷째,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

8) 노상우, “감성담론과 그의 교육철학적 함의”, **교육철학연구**, 제34권 제1호 (2012.3): p.84.

2) 감성교육의 내용

해외에서는 정식 교과목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청소년이 학교와 삶에서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는 요소가 되는 사회적, 감성적, 정신적 장애와 싸우고 있음을 알려주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 ‘2005 청소년 위험행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14~17세)의 위험한 행동요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⁹⁾

〈표 2〉 미국 청소년 위험행동 조사결과¹⁰⁾

미국의 2005 청소년 위험행동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6%는 학교에서 또는 등하교 시의 불안감 때문에 과거 30일 중 하루 이상을 결석했다.· 7.9%는 같은 기간에 학교에서 무기로 위협을 당했거나 상해를 입었다.· 28.5%는 면접에 응하기 이전 12개월 동안 2주 이상 매일 슬프거나 무기력하다고 느꼈다.· 실제 13%는 이 기간에 자살을 시도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같이 미국 교육이 우려와 위기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식한 교육계는 SEL(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즉, ‘사회 감성 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개혁안을 도입, 적용하게 되었다.

SEL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사회 감성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계되어 사회 능력 훈련, 인지-행동 수정, 자기관리, 다양한 모델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

9) 엄철현, “미국 초·중등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감성적 능력함양을 위한 학습법』 소개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제4호 (2012.4): p.9.

10) <http://casel.org/why-it-matters/sel-faqs/>, 상계문, p.9. 재인용

다. 청소년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배려심이 깊고, 잘 조성된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교에 애착심을 갖게 하고, 위험행동을 덜 하도록 지도하며, 긍정적으로 발달 단계를 경험하도록 하여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효과적인 SEL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단계까지 지속된다. 이 프로그램은 다섯 가지의 핵심 요인을 포함하는데, 모두 학생의 사회적·감성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¹¹⁾

〈표 3〉 SEL 프로그램의 다섯 가지 역량

역량	내용
자기인식 (self-awareness)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관심과 가치를 기술하며, 자신의 장점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들(청소년)은 근거에 기초하여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
자기관리 (self-management)	그들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동을 통제하고, 장애를 극복하면서 인내할 수 있다. 개인적, 학업적 목표의 성취에 대한 단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사회적 인식 (social awareness)	그들은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고 타인을 강조하며, 개인적, 집단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자원을 추구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간관계 기술 (relationship skills)	그들은 협력에 기초하여 건강하고 유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들은 부적절한 사회적 압력에 저항한다. 즉, 쌍방 간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고, 해결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준다.

11) 엄철현, “미국 초·중등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감성적 능력함양을 위한 학습법』 소개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제4호 (2012.4): pp.10-12.

<p>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책임있는 의사결정 (responsible decision-making)</p>	<p>의사 결정시 그들은 윤리적 기준, 안전문제, 적절한 사회규범, 타인에 대한 존경, 행위에서 비롯될 가능한 결과를 고려한다. 그들은 학업과 사회적 상황에서 이러한 의사결정 기술을 적용하고, 자신의 의사 결정이 학교와 커뮤니티의 안녕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p>
---	---

국내의 경우 정식 교과목과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는 해외와 유사하다. 현재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우울,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성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학회의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감성교육 연구소’에서는 특별히 국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청소년 학교폭력과 자살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와 강연활동을 통해 그 내용과 실천방법을 교육의 현장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교사들과 소통하여 그 내용을 발전시키고 있다.¹²⁾ 그 내용 중 주된 방법은 영상물을 통한 감성교육인데, 실제적인 활용도가 높고 그 효과도 입증되어 많은 교사들이 영상물을 활용한 감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상물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 감성의 구성 요소에 맞는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폭력적인 장면이 덜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영상을 선정한다. 이를 주1~2회, 각 15분 정도로 영상물을 시청한 뒤 감상문을 적어 교사와 소통하는 방식의 교육이다. 다음의 <표 4>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생활을 지도하는 차원의 감성교육의 내용 핵심어를 재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¹³⁾

12) 한국감성교육연구소 소장 홍영미는 2006년 학급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감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사 웹 커뮤니티를 통해 현직 교사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13,000여명의 교사들에게 자료를 보내고 7,000여 명의 교사들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1,000여 명의 교사들로부터 감성교육 프로그램 활용 후 피드백을 얻어 내용을 좀 더 발전적으로 수정·연구하고 있다.

13) 홍영미 외, **교육을 바꾸는 힘, 감성교육**, (즐거운 학교, 2013), pp.77-87.

〈표 4〉 학교 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를 위한 감성교육내용

12가지 상담사례	주요 감정	감성 영상물의 주제어
화 조절이 안 되는 학생	분노, 우울	화 다스리기, 용서, 감정 치유
‘죽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	우울, 절망감	생명 존중, 가족애, 자존감
성적 스트레스가 심한 학생	열등감, 우울, 무기력, 불안, 좌절감	귀인실험(실패의 원인 분석, 공부의 의미, 비교 프레임)
방관하는 학생	무관심, 두려움	작은 실천의 힘, 용기, 정의
따돌림 당하는 학생	자신감 결여, 우울, 소외감, 분노	배려, 따돌림 극복 사례
가족간의 소통 부재로 방황하는 학생	분노, 우울, 불안, 소외감	동물 가족애, 가족애
절도 등 비행을 저지르는 학생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짜증, 지켜운 감정	도덕성, 자존감
친구관계를 맺기 힘들어 하는 학생	자신감 결여, 소외감	우정, 동물과 사람의 우정
말이 거칠고 욕을 잘하는 학생	짜증, 열등감	말의 힘, 감정 코칭, 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수업 시간에 무기력해하고 ‘꿈이 없다’고 말하는 학생	무기력, 열등감, 좌절감	꿈과 희망, 강점 찾기
‘우울하다’고 말하는 학생	우울, 무기력, 절망감	감정 치유, 감정 정화, 행복
불평과 불만이 많은 학생	화, 짜증	감사, 기부, 행복

감성교육은 학습자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교육이다. 이는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보는 감성적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감성함양을 위해 편견이나 권위에 의해서 학생을 대하지 않고, 학생의 감성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강제와 인위가 아닌 자유로운 감성 발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또래 간에 서로 소통하며 교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자를 배려하는 감성교육은 어떤 중요한 지식을 주입하는 평면적인 교육이 아니라 감성적 반응과 교류를 통한 체험적 습득이 이루어지는 입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감성 교육의 필요성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더 적절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적인 요소로서 이성의 역할보다 감성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였고,¹⁵⁾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인간의 감성이 이성적 논리나 지식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러한 감성의 위력을 부정적인 것으로 문제 삼기도 했다. 이는 모두 감정이 이성이나 지성마저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견해이다. 또한 앙리 베르그송(Henry Bergson)도 감성의 능동성을 강조하였는데, 감성을 ‘예술과 과학, 그리고 문화를 창조하는 지성의 실체’로서 설명하였다.¹⁶⁾ 또한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Damasio)는 뇌 손상 환자의 사례 연구를 통해 감성과 감각의 결핍은 합리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14) 노상우, “감성담론과 그의 교육철학적 함의”, **교육철학연구**, 제34권 제1호 (2012.3): pp.89-91.

15) 상계서, p.76. 재인용

16) 김재은·홍순정, **창의성과 감성교육** (창지사, 2012), p.206. 재인용

현명한 판단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¹⁷⁾

이렇게 감성의 결핍이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철학적 견해와 과학적 증명들을 통하여, 교육에서 ‘감성’의 영역은 지성과 함께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이성 중심으로만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교육을 통해 통찰력과 논리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예술·과학·문화를 창조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은 주된 화두로 인식되고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참여부터 목표설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교육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학습형태를 말하는데,¹⁸⁾ 이는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마주한 교육현실에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필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맞는 과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는 학생에게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우는 감성교육은 학습자 스스로의 요구와 만족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좋은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이러한 자율성과 자기 이해능력을 키워주는 감성교육보다 지성교육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지적 능력을 키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입시 위주의 치열한 경쟁 상태에 놓인 학생들에게 감성교육은 정식 교과목도 아니며 교사재량의 활동 정도로 그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서 학생들은 학업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능력이 없어 좌절과 우울감에 빠지지 쉬우며, 심각

17) 김재은·홍순정, **창의성과 감성교육**, (창지사, 2012), p.207. 재인용

1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1995)

한 경우에 따라서 자살충동이나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나 큰 사회적 문제와 논란을 낳기도 한다.¹⁹⁾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연구²⁰⁾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주관적 행복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최하위 수치로 보고되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72.54점 이었고, 1위는 스페인의 117.23점으로 한국과 44.69점의 차이를 나타냈다.²¹⁾ 이는 지성교육에 치중된 한국 공교육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율성을 누리며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감성교육은 이처럼 오래 전 철학자들의 논의로부터 현대 교육 방향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감성교육이 학생들의 자발성 향상과 더불어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발전을 이루는 감성발달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있어 감성의 발달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며 발달할 수 있도록 감성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되어진다.

19) 홍영미 외, **교육을 바꾸는 힘, 감성교육**, (즐거운 학교, 2013), pp. 34-36.

20) 한국방정환재단이 주관하여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초등학교(제주 제외) 4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710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21) 상계서, p.35. 재인용

2. 도예 교육

1) 도예의 개념과 역사

‘도예’는 ‘도자예술’의 약자로 '흙으로 만들어 구워진 예술성 있는 작품, 또는 그 예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도자예술은 흙으로 만들어 불에 구워진 예술의 형태를 말한다.²²⁾ 또한 성형, 건조, 소성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점토물을 ‘도예’ 또는 ‘도자예술’이라고 부른다.²³⁾



〈그림 1〉토제인물상

현한 미술품들이 있다.

고조선에 해당하는 기원전 2000년 중엽에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시유(施釉) 도자기의 흐름이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각각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갖게 되는 발전을 이루게 된다.²⁴⁾

22) 이진복, 조형도예표현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14), p.6.

23) 한길홍 외, 도자조형예술, (미진사, 2009), p.11.

24) 김태연, 중국, 일본, 유럽도자를 통한 한국도자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6), p.52.

삼국시대에 이르러 토기를 굽는 시설인 가마가 등장하여, 고화도의 토기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문명의 발달로 이웃 나라들과 서로 영향을 받으며 도예도 발전을 이룸에 따라 쓰임새에 맞는 토기와 용기가 다양화되었다.

고려시대는 다공질(多孔質)의 토기와 달리 흡수율이 매우 낮은 자기(磁器)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청자가 발달하였다. 청자는 고려 불교문화와 귀족사회의 취향을 드러내며 비색청자, 상감청자, 진사청자를 비롯한 다양한 장식기법의 발달, 우아한 형식미의 구현으로 고려 도자예술의 독자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후 조선에 이르러 지도층의 권위와 이념을 상징하는 생활문화이자 예술품으로서 백자와 분청사기는 완숙한 미를 구축하였다. 특히 조선의 백자는 왕실 주도로 요업을 운영하였으며 왕조의 성쇠에 따라 양식이 다양하게 변화되기도 하였다.



〈그림 2〉크레타도기²⁵⁾

서양은 기원전 3000년 초기 즈음에 이집트에서 첫 시유도기가 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하여 약 3000년간 계속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크레타 문명이 발생한 후 고대 지중해 양식인 채색도예가 시작된다. 이는 지중해 지방의 도공들이 흙 속에 함유된 금속원소를 고온의 초벌구이로 밀착시킴으로서 도자기 표면을 산화물의 색으로 장식하는 방법이었다.

기원전 1000년 무렵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포도주와 기름을 담는 도기와 말린 것들을 담아주는 단지 등의 용도로 토기를 만들었다. 기원전 800년경에는 도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도기화’도 다양했는데, 초기에는 인물과 장식무늬를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하다가 점차 그리스 신화 속의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와 전쟁과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흑색상’과 ‘적색상’은 도기화의 전형적인 두 가지 기법으로,

25) 김태연, 중국, 일본, 유럽도자를 통한 한국도자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6), p.53.

검은색 배경에 붉은색의 대상을 그린 것이 적색상 양식이며, 붉은색 배경에 검은색 대상으로 표현한 것이 흑색상 양식이다.²⁶⁾



〈그림 3〉 그리스 도기화 흑색상 · 적색상 양식

이 후 비잔틴 시대에는 서민들이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기와 그리스도가 새겨진 도기가 있었으며, 이슬람 문화의 풍토를 형성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오리엔트풍의 도기가 많았다. 이 시기에는 주석유(朱錫釉)의 아름다운 러스터채(Lustre)가 대표적인 석유도기가 있다.



〈그림 4〉 러스터채²⁷⁾

14세기 말 무렵부터 이 러채스터 도기와 채색화 도기가 이탈리아로 대량 수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수입도기는 마올리카(Majolica)라고 불리며 르네상스 도예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후 근대에 이르러 르네상스의 궁정 중심적인 문화가 퇴조하면서 여러 사회적 요인과 함께 화려하고 장식적인 도기의 생산이 줄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도예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량생산된 고품질의 도자기와, 산업사회와 물질문명으로부터

26) Carol Srickland, 클릭, 서양미술사, 김호경(역), (예경, 2010), pp.28-29.

27) 김태연, 중국, 일본, 유럽도자를 통한 한국도자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6), p.58.

발생한 예술의 추상표현주의 도자로서 그 역사가 이어져오고 있다.

흙은 이처럼 인류의 시작부터 문명의 진행 과정에서 인간과 함께해 온 소재로서 자연적이고 창의적 속성을 갖는다. 흙이라는 자연적 재료를 통한 인간의 원초적인 창작 본능은 인류를 생활 속의 실용적 · 장식적 기능을 충족시켜주고 예술적 감각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특히 산업 사회가 도래하면서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도예분야에서도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제작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형예술로서의 새로운 개념과 수용이 시도되어지고 있다.²⁸⁾

2) 도예 교육의 내용

도예 교육은 인류가 흙을 탐색하고 이용하면서 체계화한 다양한 창작기법을 가르치고, 점토를 활용해 도자로서 표현하는 예술을 제시하는 미술교육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도예 교육의 내용은 미술사에서 다루지는 도예의 역사와 재료 · 기술 · 방법에 대한 도예 기법의 내용을 포함한다.

재료의 원료인 ‘흙’은 가공과정을 거쳐 도예활동에 적합한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성분과 특징에 따라 가소성 점토, 와목 점토, 목질 점토, 석기 점토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도예 기법은 점토의 종류 수보다도 다양한데 성형 방법으로 주물럭 성형, 흙가래 성형, 점토판 성형, 속파기 성형, 물레 성형, 옹기 성형, 형 성형 등 매우 다양하다. 전체적인 도예 기법의 설명을 점토, 성형, 장식, 유약, 시유, 가마, 소성의 순으로 설명하며 미술교육에서 주로 다루지는 기법을 표로 설명하고자 한다.

점토(粘土, Clay)는 상태와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오랜 시간

28) 한길홍 외, **도자조형예술**, (미진사, 2009), p.5.

에 걸친 암석과 광물의 분해로 생성되어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수분을 가한 점토는 가소성(可塑性)을 갖고 있어 입체적 성형을 용이하게 해준다.

성형(成形, Forming)이란 가소성 재료인 점토를 주재료로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기 및 조형작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성형방법은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작품의 형태, 크기, 종류, 작가의 기호에 따라 그 방법이 다양하다.

〈표 5〉 도자예술의 내용과 기법 -성형

내용분류	제목	소제목	
성형	점토준비	꼬막 밀기	
	주물럭 성형	주물럭 성형	
	흙가래 성형	흙가래 성형	
	점토판 성형		점토판 제작방법
			입체물을 이용한 조형작업
			평판을 이용한 입체 작업
	속파기 성형		조소적 기법을 이용한 방법
			기존의 틀을 이용한 방법
	물레 성형		물레의 종류 및 사용 방법
			중심잡기
			원통형 만들기
			전 만들기
			기물 걷어내기
			발 만들기
			항아리 형 만들기
			찰주전자 만들기
굽깎기			

장식(裝飾, Decoration) 기법은 크게 가소성 상태에서 장식하기와 반 건조 상태에서 장식하기, 초벌 후에 장식하기, 본 구이 후에 장식하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법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점토의 상태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장식 기법은 작품을 구상하고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계획하고 결정해야 미적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표 6〉 도자예술의 내용과 기법-장식

내용분류	제목	소제목
장식	가소성 상태의 장식	기본형 변형하기
		모깍기, 먼치기
		눌러 뜨기
		연리문 장식
	반 건조 상태의 장식	도장 찍기
		음각과 양각
		투각
		흙 내기
		두드려 문양내기
		점토 부조
		화장토 장식
		상감 기법
		스그라피토
		슬립 트레이일링과 페더링
		형지 사용하기
	초벌 수의 장식	문지르기
		하회그림 그리기
		안료 찍기
		도장 찍기
		도자용 채색 용구
	재벌 후의 장식	왁스 레지스트 기법
상회 그림 그리기		
수금으로 장식하기		
러스터유 장식		
전사 장식		

유약(釉藥, Glaze)은 소지의 표면에 균질의 규산염을 용착시키는 얇은 유리질 피막을 말한다. 유약은 유리와 같은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도예 작품의 표면에 광택이 나게 하며 다양한 색으로 표현되어 작품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역할과, 표면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시유(施釉, Glazing)는 소지 표면에 슬립상태의 유약을 바르는 작업이다. 시유는 한 차례의 가마 소성을 거친 초벌구이 상태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초별구이를 하지 않은 점토 상태에서 시유하는 방법도 있다.

가마는 우리나라 언어로 부엌에서 솥에 불 때는 장치를 말한다. 오늘날 도예 기법에 있어 가마는 일반적으로 소성에 사용되는 것으로, 물체를 가열하는 공업적 장치를 요로(窯爐) 또는 가마라고 한다.

소성(燒成, Firing)은 도예기법에 있어 성형, 시유와 더불어 중요한 마지막 과정 중 하나이다. 목적에 따라 초별구이, 재별구이, 상회구이로 구분된다.

중등미술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된 미술교과서에서는 위와 같은 상세한 도예 기법보다는 간략하게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예의 기술적 방법에 해당하는 '표현'단원 뿐 아니라 '체험'과 '감상'이라는 전체 단원 안에서 도예교육의 내용이 소수 다루어지고 있다.

점토로 형태를 만들어 건조시킨 뒤 소성하여 완성시키는 도자예술의 범위 안에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있는데, 쓰임새를 강조한 전통적·실생활적인 도예 교육과, 순수한 예술적 표현을 강조한 현대적·조형적인 도예 교육이 그것들이다. 전자는 실생활에서 쓰이는 용도로 실용적인 면에서, 후자는 개인의 감정 표현과 창의적 발달 측면에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후 미술교과서 연구장에서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감성교육을 위한 도예 교육의 필요성

대부분의 학문 분야는 우리의 손이 실제적으로 일을 할 때 다양한 만족을 느낀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무엇을 만드는 의미 있는 일, 머리보다는 손이 인도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것, 무엇을 할 것인지 손으로서 결정하는 방식, 손의 리듬과 습관에 근거한 여러 활동적인 일들의 중요성을 간과한다.²⁹⁾

서길용은 도자 예술에 대해 ‘우리는 손을 이용하여 물건을 만드는 즐거움을 잃어가고, 유기적으로 사물과 사물을 종합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나가는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다. 도자기는 전문적인 기술의 예술이 아니라 도공의 정신적인 것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도자기는 마음의 예술이고 정신과 자연의 힘의 아름다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설명하였다.³⁰⁾

모인순은 “공예교육에서의 가치가 촉감과 같은 본능적인 느낌이 존재감에 대한 중요한 정서적 감흥을 끌어내며, 공예품에 담긴 문화의 소통이 삶에서 어떠한 기능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공예의 역사를 통하여 인류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인 맥락을 담은 의미체로 작동한다는 인식함에 있다.”고 하였다.³¹⁾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할 때 도예교육은 그 활동 시 발생하는 본능적인 감각인 촉각적 쾌를 불러일으키고, 역사적 교육으로서 지혜를 배우며 사회와 문화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유기적 감성능력과 촉각적인 발달을 자극시키는 도예교육은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 문제시 되는 물질만능주의, 기계주의, 디지털 산업화로 인한 개인주의로 메마른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인격은 육체와 정신을 조화시킬 때 형성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써 향상된다.

29) Tom Anderson·Melody K.Milbrandt, *Art for Life*, 김정희 외 (역), **삶을 위한 미술교육**, (예경, 2007), p.195.

30) 서길용, **도자실기**, (조형사, 1994), p.62.

31) 모인순, “공예교육의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도자학연구**, Vol.8 No.2 (2012): p.39.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에 있다면 교육은 이러한 인간의 행복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루이스 뎀퍼드(Lewis Mumford)와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허버트 리드(Herbert Edward Read)는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의 문명을 논하고 있다.³²⁾ “그들은 ‘인간적 사회의 창조수단으로써 미술을 통하여 인간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리드는 ‘오늘날 교육의 조직은 분열시키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분리시키려고 한다. 예술의 완성은 예술의 실행으로부터 —도구나 소재에 의한 훈련 형식이나 움직임에 의한 훈련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교육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예술 활동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활동이야말로 인간의 정서를 결정(結晶)과 같이 아름다운 형태로 이루어 간다.’라고 하였다.”³³⁾

최근 수십 년 동안 발표된 많은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학습은 학생의 ‘사회적 · 감성적 · 신체적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 이뤄진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³⁴⁾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방법에 있어 정신적 ·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지식 교육에 몰두함으로써가 아니라 신체적 · 감성적인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욕구의 만족을 충족시키고 학습 목표의 질적인 성취 또한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는 디지털의 발달로 인해 예술적 표현양상도 빠르고 즉각적인 표현이 다양화 되었다. 이에 따라 미술교육계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디지털 문화교육과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를 기르는 시각적 감상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예술적 창조 활동을 통한 감성의 함양이 없이는 어떠한 예술적 대상이든 그 가치를 평가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할 것이다. 예술을 향유하고

32) 김명란, “21세기 도자공예의 사회적 역할 연구”, **수원대학교 論文集**, vol.26 No.- (2012): p.5. 재인용

33) 상계서, pp.5-6.

34) 엄철현, “미국 초·중등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감성적 능력함양을 위한 학습법』 소개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제4호 (2012.4): p.15

감상하며 삶에 의미를 갖게 하는 가치평가의 능력은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감각적 경험에서 발휘되는 감성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첨단 시대의 미술교육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적 교육방법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도예교육에 있어서도 시청각 자료나 교과서의 내용만을 통해 기술적인 방법을 배우는 지식적인 방식만으로 제한시키지 않고, 도예 기법을 통하여 감성 표현을 촉진시키는 교육이 다양하게 필요하다. 도예교육에 있어 주요한 역할인 흙은 자연적인 원재료로서 인간친화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 자연적 재료를 통해 실제 공간을 점유하는 실제적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창의적·진인적 발달과 더불어, 빠른 현대사회에서 그림의 미학이 주는 삶의 의미를 통찰하는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현대 도예 활동들이 이전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재료와 결합을 통해 현대미술의 흐름과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흙이 인류의 생활과 오래 전부터 친숙한 소재였듯, 교육을 통해 점점 더 새로워지는 도예 활동은 친숙함으로, 감수성의 표현으로, 감성발달로 청소년들을 이끌어 줄 수 있다.

Ⅲ. 중학생과 감성·도예 교육의 상호 관련성

1. 인지적 발달단계

중학생은 청소년기로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이상주의적이고 활기가 넘치며 이타적·열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쉽게 흥분하며 새로움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왕성하다.³⁵⁾

공예교육에서 학습자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교육에 머물 수밖에 없다. 모인순은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지발달을 지각적 측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데, 특별히 변증법적 사고를 기초로 고려되어야 하는 청소년의 인지발달에서 그 가치를 주목하고 있다. 15세 이후 인지발달에서 변증적 사고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학교에서 학습하는 지식의 방식이 미래에 세상을 파악하는 사고의 틀을 결정짓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³⁶⁾

인지영역의 발달 단계와 미술표현의 발달은 서로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미술교육에서 중요하다. 로웬펠드(Victor Lowenfeld)는 자신의 6단계 표현발달 이론에서 아동들이 점토를 재료로 어떤 표현들을 하는지 관찰하여 그 특성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는데, 그것을 재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³⁷⁾

35) 데이비드 윌시, **10대들의 사생활**, 박윤정(역), (시공사, 2011), p.20.

36) 모인순, “공예교육의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도자학연구**, Vol.8 No.2 (2012): pp.4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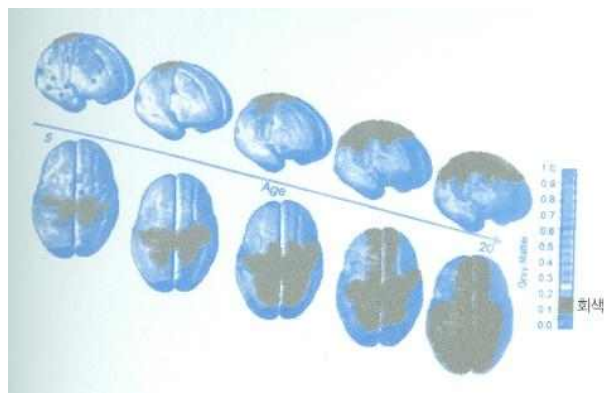
37) 김성숙 외, **미술교육과 문화**, 제2판, (학지사, 2007), pp.166-170. 재인용

〈표 7〉 로웬펠드의 입체표현 발달 단계

발달단계	연령	표현 특징
난화기	2-4세	점토를 주무르고 두드리는 행위로 찰흙의 특성을 촉각적 경험을 통해 탐색하는 단계
전도식기	4-7세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점토덩어리로부터 원하는 부분을 돌출시켜 나타내거나, 또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 접합시켜 대상을 표현하는 단계
도식기	7-9세	아동에게 대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점토가 적합한 매체가 되는 단계. 형태를 덧붙이거나 제거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안과 밖 등의 공간을 이해하는 단계
포래집단기	9-11세	다양한 3차원 프로젝트의 실시가 가능한 단계. 표현재료로서 점토뿐만 아니라 종이, 나무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 단계. 표현 주제가 다양해지며 대상의 특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단계
의사실기	11-13세	뼈대에 살을 붙여가면서 형태를 나타내는 소조 방법과 커다란 덩어리로부터 떼어내면서 형태를 표현하는 조각 방법이 가능한 단계
결정기	13-17세	육면체 블록을 조각해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시기. 형태에 대한 정확한 지각으로 비례와 움직임 표현하며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표현하는 단계

중학생 이후 시기부터 학생들은 공간지각능력의 발달로 표현대상의 각 부분의 관계를 인식하여 표현한다. 손의 협응력이 미비했던 중학교 이전의 시기보다 점차 발전된 형태로 양감, 질감, 운동감 등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표현 재료와 용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선택폭이 넓어져 자신의 표현 의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면서 더욱 개성이 반영된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인지적 능력의 발달에 있어 인간의 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뇌는 1000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뉴런의 생성은 유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며, 자주 사용하는 뇌세포 간의 연결은 강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뇌세포는 퇴화하는 ‘진지과정’을 거친다.



〈그림 5〉 뇌의 발달 과정³⁸⁾

UCLA의 신경생리학자인 앤드루 토가(Andrew Toga)는 위의 그림으로 15년 동안 인간의 뇌 발달과정을 보여주었다. 5세부터 20세에 이르기까지 점차 뇌는 회색 부분이 증가하는데,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지의 과정으로 가지치기가 된 뇌세포이며 뇌가 점차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5〉는 청소년기에 인간의 뇌가 얼마나 활동적으로 발전하는 지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일부 중요한 뇌의 영역의 경우 청소년기 동안에만 발전과 전지 과정을 겪는다.³⁹⁾ 이처

38) David walsh, *Why do they act that way?*, 박윤정(역), **10대들의 사생활**, (시공사, 2011), p.75.

럼 청소년의 뇌 발달은 충동의 통제, 관계 형성, 의사소통 형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공감의식을 깨우치는 감성교육은 중학생의 시기에 인지적 발달과 관계형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감성교육에 소극적인 공교육

미국의 교육계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SEL(사회 감성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행하여 수학, 언어 과목과 같은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였다. SEL 학습의 본 고장인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남미 등 국제적으로도 SEL 학습 이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⁴⁰⁾ 영국은 교과목에 포함시켰으며, 교육 강국인 싱가포르도 감성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감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들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국내 교육계에서도 감성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인식되면서, 현재 시청각 자료를 통한 감성교육이 열정 있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일주일에 1회씩 5-10분가량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필요성을 인식한 교사의 자율성에 국한되어 있어 외국의 사례와 같이 교과목으로 지정되거나,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회적, 감성적 학습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학생의 감성적 능력을 개발하며 신체를 건전하게 단련시킬 수 있는 교과목은 입시중시의 과목에 묻혀 변형 또는 축소되는 것이 공교육의 현실이다. 예술 과

39) David walsh, *Why do they act that way?*, 박윤정(역), **10대들의 사생활**, (시공사, 2011), p.69.

40) 엄철현, “미국 초·중등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감성적 능력함양을 위한 학습법』 소개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제4호 (2012.4): p.36.

목을 통한 미적 교육은 자신의 감정과 관념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며 감성함양을 활성화시키기에 효과적임에도 주요과목의 수업시수에 비해 아주 적은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동양적 세계관에 의하면 감성과 관련된 신체 기관은 ‘오관(五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섯 개의 감각 기관으로 시각 · 청각 · 후각 · 미각 · 촉각의 감각 기능을 말한다. 김시천은 이 오관을 단순히 대상의 정보 처리를 위한 매개의 기능이 아닌, 몸의 안과 밖이 서로 소통하는 통로라고 하였다(김시천 2007, 노상우 2012 재인용).⁴¹⁾ 오관의 기능은 음악, 미술, 체육 과 같은 예체능 과목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다른 교과목에 비해 신체 감각 기능을 자극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내용 학습과정 안에서 골고루 다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도예교육은 오관의 다섯 가지 기능 중 촉각의 자극을 극대화 시킨다. 점토작업은 그 촉각적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술표현매체 중 매우 역동적인 표현재료가 될 수 있다. 미술치료학적으로도 점토는 주무르고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억압된 정서의 표출을 도우며 신체적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재료로서 학생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잘 흡수하는 특징이 있다.⁴²⁾ 또한 단순히 만지는 활동만으로도 소근육과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며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돕는 매체이다.

노상우는 현대 사회에서 ‘좋은 교육’이란 학생이 자신의 내적 변화를 관찰하고 느끼고 자기규제하면서 타자를 배려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⁴³⁾ 점토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중학생 시기에 경험하는 도예교육은 감정의 표현 방법과 통제에 대한 판단력이 아직 미숙한 그들에게 ‘좋은 교육’의 효과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적절한 정서 표현과 감성 발달을 필요로 하는 중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1) 노상우, “감성담론과 그의 교육철학적 함의”, *교육철학연구*, 제34권 제1호 (2012.3): p.80.

42) 한국심성교육개발원, *심성계발을 위한 미술치료의 이해와 실제*, (한국심성교육개발원, 2009), p.93.

43) 노상우, *상계서*, p.85.

3. 중학교 자유학기제

2013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구학교에서의 시범적용과 의견 등을 검토하여 2016년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임을 공표하였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실습과 참여 형태로 개선하고,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표 8〉 자유학기 운영 모형 적용 예시⁴⁴⁾

진로탐색 중점 모형: 전일제 체험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기본교과 편성		전일제 진로 체험 (자유 학기 동안 2회 이상 실시)	(19시간)	
2					
3					
4					
5		선택 프로 그램		예체	
6					동아리
7					
방과 후 학교	'자율과정'과 연계·운영				

예술·체육 중점 모형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기본교과 편성 (21시간)				
2					
3					
4					
5	예체 국악 무용 만화 사진 디자인 스포츠클럽 등	진로	선택 프로 그램		
6				예체	동아리
7					
방과 후 학교	'자율과정'과 연계·운영				

청소년 교육에 있어 전환기에 해당하는 중학교에서 장래 희망에 대한 물음에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초등학교에 비해 급증하였고, 이는 고등학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⁵⁾ 교육부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과 이해 부족을 인식하여 자유학기제를 추진하였다.

2013년 전국 42교의 연구학교로 시작하여, 2014년에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가 811교(25.6%)에 달했고, 2015년에는 50%이상의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6년에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⁴⁶⁾

제도 특성상 중학교 교육은 개인 맞춤형 진로탐색과 함께 인성 함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성적을 중시하는 학교 풍토를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예술 교육의 내실화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는 체험학습에서 미술교육은 단순히 단기 체험적 형태가 아니라 심화적인 미술교육의 양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미래설계를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미술 교육에 있어 환경개선의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현재 S여자 중학교에서 특별활동수업을 진행하는 도예강사 K는 본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어진 수업시간 안에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표현이나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하거나 많은 무리가 따름’을 언급하였다. 그 이유는 많은 학생을 혼자 가르쳐야 하는 부담과 주어진 시간상의 한계에 다다르기에 상대적으로 편리한 도구와 기법을 준비하게 되며,

44)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2013), pp.6-7.

교육부에서 제공한 자유학기 운영의 네 가지 모형은 진로탐색 중점,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동아리 활동 중점, 예술·체육 중점의 모형이다. 교육부 자료에는 시간표의 예시로 8가지 유형을 제시하였고, 필자는 그 중 진로탐색 중점의 전일제 체험, 예술·체육 중점 모형 이 두 가지 시간표를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45) 상계문, p.1.

46) 교육부, “행복한 교육”, vol.388 (2014.11), p.6.

그런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 하다보면 창의적이고 즐거운 활동 보다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였다. 이것은 창의적 활동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자유학기제에서 미술교육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띤 형태의 예술적 표현 활동으로서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감성발달을 도모하면서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교육 환경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에 따르면 그 구체적인 성과는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업 흥미도가 높아지고 학생의 행복감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도시가 아닌 작은 면 단위에 소재한 학교에서는 열악한 교육 인프라로 인해 그 시작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단점도 있었다.⁴⁷⁾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자유학기제의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와 교육적 지원이 필요로 해질 것이다. 예술 체험 학습적 도예 활동이 자유학기제 안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도예공방과의 협업을 모색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상호관련성에 따라 중학교시기에 있어 감성·도예교육의 종합적인 필요성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은 로웬펠드의 인지적 발달단계에서 의사실기와 결정기에 해당하는 연령이다. 이 발달단계에 의하면 중학생 이후부터 학생들은 공간지각능력의 발달로 인해 조형적 표현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감성교육을 통한 공감능력의 자극과 점토를 활용한 조각활동은 인지 발달로 이어져 학습능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둘째,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도예 프로그램을 통한 감성발달을 도모할 수 있

47) 교육부, “행복한 교육”, vol.388 (2014.11), pp.10-13.

다. 도예교육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감성을 발달시키기에 재료와 표현 방법이 적절하다. 그러나 감성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현실적인 제약으로 그 실제에 다다르지 못하는 공교육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심층적이고 다양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제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된다.

셋째, 중학생은 활발한 직업탐구와 체험학습의 시기이다. 교과부에서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로서 조형예술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 중학생들에게 공예적인 도예 체험 뿐 만 아니라, 창의적 표현 활동을 통해 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심층적인 도예 프로그램이 요구될 것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공예적 도예교육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현장 체험적인 직업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감성표현 측면에서의 조형적 도예교육은 자아표현을 통한 감성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IV. 감성·도예 교육을 위한 분석

본 장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중등 미술과 교육과정을 따른 2009 개정 중학교 미술교과서와 도예체험활동의 내용을 분석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미술 교과서 분석은 각 교과서마다 감성교육과 도예교육의 비중이 내용 면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도판으로 실린 작품은 무엇인지, 단원의 목표와 활동은 무엇인지를 표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각 교과서 별로 내용 제시가 균형적인지, 현대의 흐름과 맞는지, 도예기법을 잘 소개하였는지 등을 비교·서술하여 나타내며 감성표현의 발달과 함께 설명하였다.

이어서 체험학습에서 도예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그 활동제목을 표로 제시하였다. 체험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사진과 함께 이러한 특별활동에서의 도예교육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1. 2009개정 중학교 미술교과서 분석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지식, 개념, 원리, 기능 등을 학생들이 배우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⁴⁸⁾

중학교 미술 교과서는 학년에 따른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한 권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 교과서는 (주)교학도서, (주)금성출판사, 두산동아(주), (주)미래엔, 미진사, (주)

48) 이혜미, 중학교 미술에서 감상교육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14), p.39.

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주)천재교과서, (주)천재교육, 형설출판사 총 10권이다. 각 중학교 미술 교과서마다 도예교육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학생의 감성 표현을 위한 내용으로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지 제시하였다.

다음은 중학교 미술교과서 내의 도자공예 영역의 비율을 나타내는 표이다.

〈표 9〉 2009 개정 교육과정 미술교과서 내 도자공예 영역의 비율⁴⁹⁾

출판사	해당페이지(p)	총 페이지(수)	비율(%)
(주)금성출판사	164~165	256	0.78
(주)교학도서	150~153	240	1.66
(주)두산동아	152,156~157	260	1.15
(주)미래엔	116~117	268	0.75
미진사	52~53	268	0.75
비상교육	146~147	230	0.87
(주)아침나라	78~81	263	1.52
천재교과서	144~147	272	1.47
천재교육	188~190	256	1.17
형설출판사	39~40	230	0.87

중학교 미술 교과서 내의 도자공예 영역은 0.75~1.66%사이의 비율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교과서는 1.66%의 (주)교학도서이고, 가장 낮은 비율의 교과서는 0.75%의 (주)미래엔, 미진사이다. 도예와 다른 전통미술 영역인 서예단원은 세 출판사의 미술교과서 내에서 각각 6페이지로 제시되어 있다. (주)교학도서에 실린 서예 영역의 비율은 2.5%이고 (주)미래엔, 미진사의 비율은 2.23%이다. 서예 영역과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도예 영역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9) 유미선, *중등미술 교육에서 도자공예수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14), p.21.

다음은 교과서 속 도자공예 작품 위치 및 종류를 분류한 표이다. 도예 참고작품이 도예 단원과 그 외의 단원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전통작품, 현대작품, 학생작품, 그 외 기타작품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표 10〉 교과서 내 도자공예 작품 위치 및 종류 분류⁵⁰⁾

출판사	단원 내				단원 외			
	전통 작품	현대 작품	학생 작품	기타	전통 작품	현대 작품	학생 작품	기타
(주)금성출판사	6	·	1	7	5	1	·	·
(주)교학도서	4	1	3	4	44	6	·	1
(주)두산동아	3	3	·	4	20	1	·	·
(주)미래엔	13	6	2	3	16	1	1	·
미진사	1	1	·	3	7	1	·	·
비상교육	1	3	3	1	6	2	1	·
(주)아침나라	5	7	3	6	8	2	1	·
천재교과서	10	1	8	·	8	1	·	·
천재교육	2	1	·	·	19	1	1	1
형설출판사	3	1	2	·	8	1	1	·

* 기타는 교과서에서 도자기 제작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작품 또는 부가설명을 위한 작품과 위의 종류를 제외한 모든 작품들을 총칭한다.

전통작품과 현대작품의 제시된 수를 비교함으로써 교과서 내에 도자예술품을 제시한 내용이 전통적 공예예술에만 머무르는지, 현대 도예의 발전과 도예 표현

50) 유미선, *중등미술 교육에서 도자공예수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14), p.23.

력 증진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 10>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과서가 전통작품을 도판으로 많이 제시하였고, (주)금성출판사의 경우 도예 단원 내에서 현대작품을 소개한 도판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출판사의 중학교 미술교과서에서는 현대작품보다 전통작품의 도판 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페이지와 도판 수의 비교로 나타난 10종 교과서의 전체적인 특징은 전통적 시각으로 도예를 설명했다는 점과, 제시한 도예영역의 비율이 다른 미술영역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다음은 각 교과서마다 제시하는 도예단원의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 표이다. 도예 단원 내에서 감성표현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었는지를 단원명, 단원 목표, 활동, 도판 및 지면으로 나타내었다. 입체표현 단원에서 점토로 만들어 구워서 완성하는 테라코타, 그리고 감상단원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진 도예 영역의 내용도 첨부하여 여러 단원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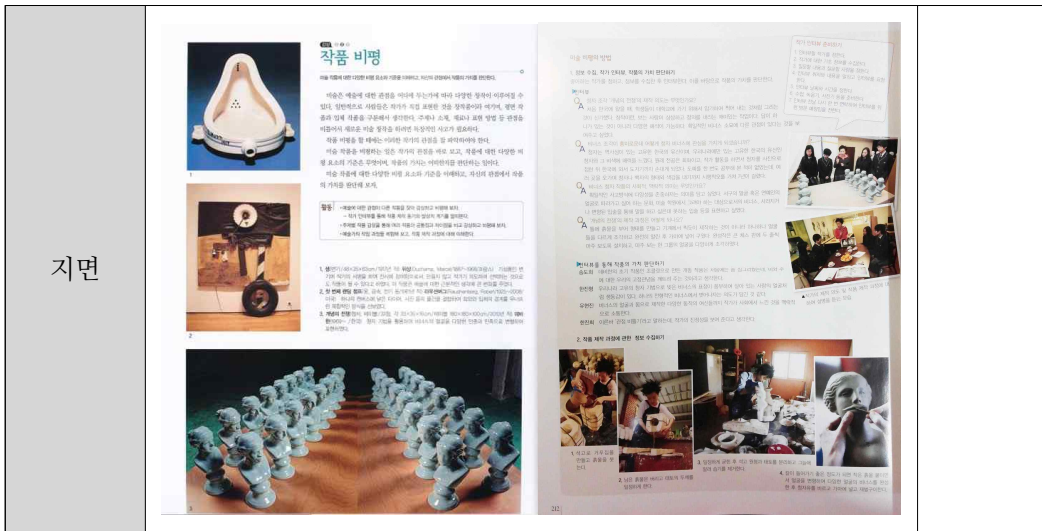
1) (주)교학도서

<표 11> 중학교 미술교과서-(주)교학도서

분류	내용	페이지 (쪽수)
단원명	<표현> 흙과 불의 조화	116~ 117p (2)
단원목표	·도자공예의 재료의 특성과 제작기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자용품을 제작한다.	

<p>활동</p>	<p>·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도자로 만든 작품이나 생활용품을 찾아본다.</p> <p>·도자의 제작 기법을 이해하고, 작품에 활용된 기법에 대하여 발표한다.</p>	
<p>도판 및 지면</p>	<p>·꽃문-기Ⅱ-박정원 (석기질 점토, 2011)</p> <p>·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고려 12세기)</p> <p>·청자 모란 닝쿨무늬 호리병 모양 주자 (고려12세기) 외 4개</p> 	
<p>단원명</p>	<p>〈표현〉 캐릭터</p>	
<p>단원목표</p>	<p>·캐릭터의 특징을 파악하고, 독창적인 캐릭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든다.</p>	<p>137p (1)</p>
<p>활동</p>	<p>·대상의 특징을 잡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p> <p>·캐릭터로 생활용품을 만든다.</p>	

<p>도판 및 지면</p>	<p>·동물을 형상화한 캐릭터 열쇠고리-이정은(2012)</p> 	
<p>단원명</p>	<p>〈감상〉 작품비평</p>	
<p>단원목표</p>	<p>·미술작품에 대한 다양한 비평요소와 기준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의 가치를 판단한다.</p>	
<p>활동</p>	<p>·예술에 대한 관점이 다른 작품을 찾아 감상하고 비평한다. ·주제별 작품 감상을 통해 여러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감상하고 비평한다. ·예술가의 작업과정을 체험해보고, 작품 제작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p>	<p>210, 212p (2)</p>
<p>도판 및</p>	<p>·개념의 전쟁-데비한(청자,2010) 의 2개</p>	




(주)교학도서의 도예단원은 <표현>영역의 ‘흙과 불의 조화’, ‘캐릭터’ 단원과 <감상>영역의 ‘작품비평’ 단원이다. ‘흙과 불의 조화’ 단원에서는 도자기 제작방법을 말아 만들기, 주물러 만들기, 흙 판으로 만들기, 물레로 만들기의 네 가지 기법으로 설명하였다. 전통적 기법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가 단원의 주 내용이며 ‘캐릭터’ 단원에서는 백자 소지에 색 안료로 캐릭터를 그려 넣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다른 출판사와 비교하여 특별한 점은 <감상>영역에서 현대도예작가의 작품을 통한 미술비평내용이다. 청자 기법을 활용하여 비너스의 얼굴을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변형한 현대작품 ‘개념의 전쟁’의 제작 과정과 작가 인터뷰를 한 페이지 분량으로 상세하게 제시하여 현대 도예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교학도서의 미술교과서는 <감상>영역에서 작가의 작업과정을 제시하며 도예의 전반적인 활동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표현>영역에서는 전통적이고 실용적인 공예로서 도자예술을 제시하였고 개인의 감성표현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볼 수 없었다.

2) (주)금성출판사

〈표 12〉 중학교 미술 교과서-(주)금성출판사

분류	내용	페이지 (쪽수)
단원명	<p>〈표현〉 장인의 숨결</p>	
단원목표	<p>·전통 생활용품에서 찬란한 수공의 미와 장인의 정신을 발견한다.</p>	
활동	<p>·말아 올려 형태를 만드는 기법을 이용해 접시를 만든다.</p>	
도판 및 지면	<p>·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상감청자, 12세기) ·분청사기 감화 어문 편병(분청사기, 15세기) ·달 향아리(백자, 18세기) 외 5개</p> 	<p>164~ 165p (2)</p>

(주)금성출판사의 도예단원은 <표현>영역의 ‘장인의 숨결’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는 전통 생활용품에서 수공예와 장인정신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고려와 조선시대의 작품을 제시하고 도예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도예 기법은 판으로 만들기, 말아 올리기, 빗어 만들기, 물레로 만들기, 틀을 이용해 만들기로 다섯 가지이다. 이중 말아 올리기 기법을 이용해 접시를 만드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주)금성출판사의 미술교과서는 흙을 빗어 구워 만드는 작품인 테라코타에 대한 설명이 없고, 흙을 만지는 활동의 내용도 없다. 감성표현을 하기 좋은 촉각적 특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면을 부각하여 제시했다.

3) (주)두산동아

<표 13> 중학교 미술 교과서-(주)두산동아

분류	내용	페이지 (쪽수)
단원명	<표현> 다양한 문화를 담은 공예	156~ 157p (2)
단원목표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공예의 특성을 이해한다. ·쓸모와 아름다움을 살려 다양한 재료로 표현한다.	
활동	·도자기 만들기의 여러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만들어본다.	
도판 및 지면	·대나무무늬 병(청자, 12세기 고려) ·물고기 무늬 병(분청사기, 16세기 조선) ·달 향아리(백자, 17세기 조선)	





(주)두산동아의 도예단원은 <표현>영역의 ‘다양한 문화를 담은 공예’ 단원이자, 도자기 만드는 기법을 빚어서 만들기, 판으로 만들기, 말아서 만들기인 세 가지 형태로 제시하였다. 전통 공예로서의 도자기를 설명하였고, 우리나라의 고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자기의 도판을 제시하였다. 한 페이지에 걸쳐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나타냈다.

(주)두산동아의 미술교과서도 대부분 전통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감성표현이나 내면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점토 재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릇을 만들기 위한 재료와 기법을 제시하였다.

4) (주)미래엔

<표 14> 중학교 미술 교과서-(주)미래엔

분류	내용	페이지 (쪽수)
단원명	<p>〈표현〉 불멸의 재료, 흙</p>	
단원목표	<p>·흙이 가지는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자의 의도에 맞게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p>	
활동	<p>·테라코타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종이 지점토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p>	
도판 및 지면	<p>·녹유 사천왕상(테라코타, 신라시대) ·차이나 시리즈-시안(점토, 1997~1999) ·들판-곰리(테라코타, 1991) 외 6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422 1205 790 1758"> <p>2 불멸의 재료, 흙</p> <p>● 흙이 가지는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자의 의도에 맞게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p> <p>흙은 예로부터 인간이 손쉽게 사용하는 재료의 하나로, 중세에서 구하기 쉽고 제작할 때 다루기 쉽다. 흙 그 자체로는 보존성이 떨어져서 오랜 기간 보존될 수 없다. 흙은 사멸하고 재순회되는 특성을 가진 재료로, 일회 표면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p>  </div> <div data-bbox="805 1205 1173 1758"> <p>흙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 탐구</p> <p>흙을 이용한 작품은 비교적 제작 과정이 쉬운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현대 미술에서는 흙을 구워 만든 테라코타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하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흙 자체를 사용하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 원도를 오래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흙으로 만든 미술 작품의 아이디어를 조사해 보자.</p>  </div> </div>	<p>81~82p (2)</p>


<p>단원명</p>	<p>〈표현〉</p> <p>흙과 불의 만남, 도자공예</p>	
<p>단원목표</p>	<p>·도자기의 종류와 제작 방법을 이해하고 개성 있는 생활도자기를 제작할 수 있다.</p>	
<p>활동</p>	<p>·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도자기로 제작해본다.</p>	
<p>도판 및 지면</p>	<p>·오리모양 연적(청자, 고려시대)</p> <p>·푸레 다기 세트-김창호(옹기토, 2009)</p> <p>·소리나무-성동훈(스테인레스 및 도자, 2007)</p> <p>외 18개</p>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width: 50%;">  </div> <div style="width: 50%;">  </div> <div style="width: 50%;">  </div> <div style="width: 50%;">  </div> </div>	<p>150~ 153p (4)</p>

(주)미래엔의 도예단원은 <표현>영역의 ‘불멸의 재료, 흙’ 단원과 ‘흙과 불의 만남, 도자공예’ 단원이다. ‘불멸의 재료, 흙’ 단원에서는 흙이 가지는 재료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흙은 예로부터 인간이 손쉽게 사용한 재료로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재료임을 설명하였다. 흙을 활용하여 예술을 입체로 표현한 테라코타 작품 도판이 5개가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테라코타 작품을 적게 제시한 것에 비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시를 하였고, ‘흙과 불의 만남, 도자 공예’의 단원에서도 전통 도자기에서부터 현대의 설치도예 작품까지 도판의 예시가 다양하다. 생활 속의 도자기로부터 현대 도예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도예 기법에서도 기본적인 성형기법과 함께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독창적인 상감기법을 제시하였다.

(주)미래엔의 미술교과서는 흙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통적인 것 외에도 다양하다는 것을 제시한 점이 다른 출판사와 비교되는 특징이다. 점토를 활용한 감성표현과 창작이 이루어지고 응용될 수 있는 도판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내용 제시가 균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5) 미진사

〈표 15〉 중학교 미술 교과서-미진사

분류	내용	페이지 (쪽수)
단원명	<p>〈표현〉 우리가 쓰는 물건</p>	
단원목표	<p>·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디자인과 공예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p>	
활동	<p>·상감기법을 이용해 타일을 만들어 본다.</p>	
도판 및 지면	<p>·오물렛 접시-학생작(도자, 2009) ·고려 청자(청자, 12세기) 외 2개</p> 	52~53p (2)

미진사의 도예단원은 <표현>영역의 ‘우리가 쓰는 물건’ 단원이다. 도예를 제시하는 비중은 다른 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작품 도판이 단원 중 두 개뿐이었다. 도예 기법을 설명하는 지면도 한 페이지 1/2 분량을 차지하였다. 다른 지면에 제시된 ‘환조-학생작(테라코타,2007)’, ‘지원의 얼굴-권진규(테라코타,1967)’, ‘내 안의 아이-배기용(석기 점토, 2008)’, ‘한빛 맹아원의 타일벽화’의 네 개의 작품과 <감상>영역의 미술사를 설명하는 작품을 제외하고 도예작품의 도판은 없다. 도예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법의 내용은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만 생활용품을 만드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감성표현의 신장으로 활동을 확장하기에는 제시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6) (주)비상교육

<표 16> 중학교 미술 교과서-(주)비상교육

분류	내용	페이지 (쪽수)
단원명	<표현> 흙과 불의 만남	146~ 147p (2)
단원목표	·도자기의 성형 방법과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다. ·조형성과 실용성을 갖춘 도자 공예품을 제작할 수 있다.	
활동	없음	
도판 및 지면	·생명-김수정(청자토, 2004) ·그녀의 구두-진혜주(백토, 2006) ·인어공주-학생작(혼합토) 외 4개	




(주)비상교육의 도자공예 내용은 ‘흙과 불의 만남’ 단원에 두 페이지로 제시되었다. 도예작품의 도판이 총 7개로 내용면에서 다양했다. 안료를 써서 화려한 도예 작품, 환경에 설치된 도예 작품, 고전적인 상감청자, 학생이 만든 실용 공예품 등으로 범위를 넓혀 제시하였다.

그러나 도예 기법에 대한 설명은 성형방법 네 가지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쳤고, 소성이나 시유 등에 관한 제시는 없었다. 또한 실제 활동을 제시하는 지면도 없었다. 호기심을 자극 할 수 있는 다양한 도판에 비해 실제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은 부족함을 보였다.

7) (주)아침나라

〈표 17〉 중학교 미술 교과서-(주)아침나라

분류	내용	페이지 (쪽수)
단원명	<p>〈표현〉</p> <p>흙과 불로 빚어낸 아름다움</p>	
단원목표	<p>·도자기의 조형적 특성을 알고, 생활에 활용한다.</p>	
활동	<p>·도자기 타일을 이용하여 나의 모습을 표현한다.</p>	
도판 및 지면	<p>·번역된 도자기-이수경(도자파편, 2006)</p> <p>·마음이 통하는 친구-하성미(석기질 점토, 화장토, 2008)</p> <p>·숲을 위한 그릇-박석우(자기, 2006)</p> <p>외 11개</p> 	<p>78~81p (4)</p>




(주)아침나라의 도예단원은 <표현>영역의 ‘흙과 불로 빚어낸 아름다움’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는 도예작품 도판이 총 15개로서 전통 백자부터 현대의 설치 도예작품까지 다른 출판사에 비해 다양한 작품을 제시하였다. 작품의 도판과 내용제시가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네 페이지 중 두 페이지는 도자기의 제작 과정과 성형방법을 순차적인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점토 다지기, 점토 반죽하기, 도자기 성형하기, 그늘에서 말리기, 문양 새기기, 초별구이(약 700~900℃), 그림 그리기, 유약 입히기, 재별구이(1200℃ 이상), 완성의 총 10가지 과정을 흥미로운 사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가마소성 과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주)비상교육 교과서와는 달리 하나의 도자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여 도예활동의 총체적인 이해를 돕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주)천재교과서

<표 18> 중학교 미술 교과서-(주)천재교과서

분류	내용	페이지 (쪽수)
단원명	<p>〈표현〉 입체로 표현하기</p>	
단원목표	<p>·입체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소의 조형 요소와 원리를 살펴 표현한다.</p>	
활동	<p>·부조작품을 배경과 높낮이를 고려하여 표현한 후 석고로 떠낸다.</p>	
도판 및 지면	<p>·고양이-권진규(흙, 1960) ·수탉-학생작(테라코타) 외 1개</p> 	<p>96p (1)</p>


<p>단원명</p>	<p><표현> 흙으로 만든 도자 공예</p>	
<p>단원목표</p>	<p>·도자기의 특성과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조형미와 실용성을 갖춘 도자기를 제작한다.</p>	
<p>활동</p>	<p>·도자기 성형 방법을 활용하여 실용적인 도자기 조명등을 창의적으로 만든다.</p>	
<p>도판 및 지면</p>	<p>·용무늬 매병(청시대, 중국) ·어릿광대-캔들러(흙, 1738) ·도자조명등-학생작(흙) 의 11개</p> 	<p>144~ 147p (4)</p>

(주)천재교과서의 도예단원은 <표현>영역의 ‘입체로 표현하기’ 단원과 ‘흙으로 만든 도자 공예’ 단원이다. ‘입체로 표현하기’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입체 표현한 14개의 작품 중 흙을 구워서 표현한 작품이 두 개 있다.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이용해 공간속에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흙으로 만든 도자 공예’ 단원에서는 다양한 도예작품의 도판이 있었다. 총 12개의 도판 중 역사적 작품, 현대 도예작품, 학생들의 작품이 골고루 지면을 차지하였고, 도자기를 만드는 기법과 그 기법으로 만든 작품의 예시까지 순서에 맞게 제시하였다. 빚어서 만들기, 말아서 만들기, 판으로 만들기, 물레로 만들기 기법의 과정을 상세하게 사진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도자 공예는 장식적이고 실용적인 것에서 나아가 예술작품으로도 제작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현대 도예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주)천재교과서의 미술교과서는 다른 출판사에 비해 도예 작품의 도판이 다양하며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테리어나 생활용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감성표현을 돕는 내용 제시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9) (주)천재교육

<표 19> 중학교 미술 교과서-(주)천재교육


분류	내용	페이지 (쪽수)
단원명	<p>〈표현〉</p> <p>옛 생활에 담긴 아름다움</p>	
단원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예의 의미와 가치를 안다. ·전통 공예 기법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공예품을 제작한다. ·전통 공예의 가치를 알고 현대에 계승하는 방법을 토론한다. 	
활동	없음	
도판 및 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자 끈 무늬 병(백자, 조선시대) ·얼굴무늬 수막새(흙, 삼국시대 신라) ·번역된 도자기-이수경(도자파편, 예콕시, 2007) 외 12개 	188~ 190p (3)



(주)천재교육의 도예단원은 <표현>영역의 ‘옛 생활에 담긴 아름다움’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 도예를 설명하는 내용을 다른 교과서들과 비교하면 내용이 현저하게 빈약하고, 도판의 종류도 적다. 공예 영역의 내용에서 “도자 공예는 주로 식생활 용기에 사용되는 공예로, 흙을 소재로 한다. 굽는 온도와 유약에 따라 토기, 도기, 자기 등으로 나뉜다.”라는 두 줄의 설명과 작품도판 세 개가 도예를 소개하는 내용의 전부이다. 타 교과서에서 보았던 도예 기법 순차적인 설명 사진이나 가마소성의 온도가 몇 도 인지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부분도 전혀 없었다. (주)천재교육의 미술교과서는 다양한 도판과 감성표현을 위한 도예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의 제시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10) 형설출판사

<표 20> 중학교 미술 교과서-형설출판사

분류	내용	페이지 (쪽수)
단원명	<p><체험> 명절과 전통문화</p>	
단원목표	<p>·전통 공예품과 현대 디자인 제품을 비교해보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p>	
활동	<p>·전통 문양이 쓰인 예를 찾아보고, 문양의 구조를 이루는 조형의 요소에 유의하여 선과 색으로 단순화 하여 표현한다.</p>	
<p>도판 및 지면</p>	<p>·청화매죽문호(백자, 조선시대) ·개구리 저금통-학생작 (도자, 2006) 외 8개</p> 	<p>39~40p (2)</p>

형설출판사의 도예 단원은 <체험>영역의 '전통문화' 단원이다. 형설출판사를 제외한 9종 교과서에서 도예는 <표현>, <감상>영역에서 다룬 것과 비교하여 구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도예 기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전통문화에서의 작품과 디자인·공예품에서의 작품 도판을 제시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 외에 타 교과서에 대부분 포함되어있는 '말아서, 빚어서, 물레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도예 기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조소와 조각의 기법은 소수의 지면에 제시하면서도, 서예의 기법은 6페이지 가량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아, 미술 표현의 재료와 기법을 균형 있게 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2009개정 중학교 미술교과서 10종에서 도예를 다룬 내용의 대부분은 전통적이고 실용적인 도예를 다루었다. 감성표현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이 나타난 도예작품과 활동을 제시한 교과서는 (주)미래엔, 아침나라 출판사의 두 교과서에 그쳤다. 점토가 갖는 물성이 학생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자아 표현을 실현시키기에 좋은 특징이 있음에도 교과서 내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전통적이며 지면과 도판의 다양성도 제한적이다. 공예 영역 안에 단 두 줄의 글로 도예 내용을 설명한 (주)천재교육의 교과서나, 도예 기법을 설명하지 않고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도자기를 설명하는 내용만 제시한 형설출판사의 교과서처럼 일부 교과서의 내용이 불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교에서의 미술활동은 주요 과목의 수업시수와 비교하여 시간이 적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미술시간에 교과서 내의 모든 미술활동 영역을 경험해볼 수는 없다. 그렇기에 교과서의 내용은 더욱 흥미롭고도 균형적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도예를 다루는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도예와 현대 도예, 그리고 흙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내용이 골고루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서 실제적인 감성교육을 위한 도예활동으로 응용되며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도예 체험 학습

대부분의 체험학습장은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도록 도구와 시설의 확보가 학교보다 잘 되어있다. 도예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주로 공방, 미술관 및 박물관, 체험학습센터 등이 있다. 필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인 도예 교육을 진행하는 곳을 대상으로 9개 기관의 총 30여개의 도예활동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형, 위치, 활동장소, 내용의 순서로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표 21〉 도예활동 일일 체험학습 현황

유형	위치	기관명	활동명	활동 내용
공방	경기	손그릇	도자기 핸드 빌딩	초벌기물에 채색하여 머그컵을 만든다.
			도자기 핸드 페인팅	초벌기물에 채색하여 화분을 만든다.
			물레체험	물레체험 활동으로 그릇, 접시 등을 만든다.
	서울	북한강 도자기 마을	머그체험	코일링 기법으로 컵을 만들고 전통박지기법으로 그림을 그려 머그컵을 만든다.
			물레체험	물레 체험 활동으로 밥그릇, 화병, 접시 등을 만든다.
	부산	부산도예 교육센터	핸드메이드 도자기	코일링 기법으로 컵이나 연필꽂이를 만든다.
초벌에 그림 그리기			초벌구이 된 컵에 채색하여 컵, 접시 등을 만든다.	

			물레체험	물레체험 활동으로 작품을 만든다.
미술관	경기	영은미술관	흙판에 얼굴 그리기	동그란 흙판에 자신의 얼굴을 표현해 유약을 바른 후 가마 소성한다.
			코일링 기법 도자기 만들기	코일링 기법으로 꽃병, 수저통 등을 만든다.
			물레 체험	물레 체험 활동으로 그릇, 병 등을 만든다.
			이미지연상을 통한 도자조형 만들기	자유로운 상상을 통한 나만의 도자조형 작품을 테라코타 기법으로 만든다.
			도자기 핸드페인팅	초벌기물에 채색하여 컵, 화분 등을 만든다.
	경기	지앤아트 스페이스	도자기 제작	코일링, 핀징, 판 성형 기법으로 도자기를 만든다.
			핸드페인팅	초벌기물에 드로잉과 채색의 다양한 기법을 응용하여 주제에 맞게 표현한다.
			물레작업	선생님과 물레작업을 체험하고 형태변형과 표현장식으로 작업한다.
	박물관	경북	문경 도자기 박물관	자유성형
판성형				
인천		애보박물관	도판회화	흙을 밀어 원하는 형태로 자른 후 그림을 그린다.

체험 학습 센터			물레성형	전기물레로 물레 성형과정을 체험한다.
			손도장 찍기	흙판 위에 손을 도장 찍듯이 찍어 표현한다.
			흙가래 성형	흙을 가래떡처럼 늘어뜨려 바닥부터 쌓아올리며 형태를 만든다.
			핸드페인팅	초벌기물에 채색하여 표현한다.
	경기	헤이리 도자기 체험학교	집 만들기	집 모양으로 창작하여 생활용품을 만든다.
			핸드페인팅	초벌기물에 채색하여 접시, 컵 등을 만든다.
			머그컵그리기 & 물레체험	초벌기물 을 채색하여 컵을 만들고 물레도 체험한다.
		경남	수요로 보천도예 창조학교	창작
공예	코일링 기법으로 그릇, 찻잔 등 생활 공예품을 만든다.			
물레	물레체험 활동으로 그릇, 컵 등을 만든다.			
드로잉	초벌기물에 채색하여 컵, 그릇 등을 만든다.			



〈그림 6〉 집 만들기 활동⁵¹⁾ 과 전통 박지기법 활동⁵²⁾ 작품



〈그림 7〉 도자기 핸드페인팅 활동 작품⁵³⁾

대부분의 공방은 도예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표현보다 컵이나 그릇, 연필꽃이와 같은 실용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였다. 초별구이 된 기물에 안료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 컵을 완성하는 활동과 물레활동을 통해 실용품을 만드는 활동이 체험학습 내용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감성적 표현력을 기르는 것은 도예 체험에서 아직 필요성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도예를 실용공예로서만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기에 체험학습장에서의 프로그램 준비도 그것에 맞추어 한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조적이고 감성표현적인 도예 활동이 조사한 기관 중에 전혀 없지는 않았다.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도예활동 중에서는 감성발달을 위한 도

51) 파주 헤이리 도자기 체험학교, www.ceramicschool.co.kr/

52) 북한강 도자기 마을, blog.naver.com/shin01225/

53) 손그릇, www.손그릇.kr/program/program03/

예활동이 없던 공방과 체험학습장에 비해 창의적인 표현활동을 일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영은미술관과 애보박물관에서 ‘흙 판에 얼굴 그리기’, ‘이미지 연상을 통한 도자조형 만들기’, ‘도판회화’, ‘손도장 찍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체험학습센터인 수요로 보천도에 창조학교의 ‘창작’ 활동도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도예체험으로 진행한다.



〈그림 8〉 이미지연상을 통한 도자조형활동 작품⁵⁴⁾



〈그림 9〉 창작 활동 작품⁵⁵⁾

54) 영은미술관, www.youngeunmuseum.org/

55) 수요로 보천도에 창조학교, www.suroyo.kr/

문경 도자기 박물관의 도예 체험은 그릇을 만드는 활동으로서 타 기관에 비해서는 다양하지 않은 활동이지만, 야외에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가마인 망댕이가마를 설치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직접 소성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있다. 학습자가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고 박물관을 방문하면 원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소성 일정을 공지하고 있다.

〈표 22〉 문경 도자기 박물관 망댕이가마 일정⁵⁶⁾

날짜	망댕이가마 스케줄
10/15(수)	초별구이 -유약처리가 용이하도록 700~800도에 약 8시간 번조하는 과정
10/16(목)~17(금)	요출 및 시유 -가마에서 초별된 그릇을 꺼내어 유약처리를 하는 과정
10/19(일)	재임 -재별구이를 하기 위해 시유된 기물을 가마에 넣는 과정
10/21(화)~22(수)	재별구이 -1300도에 약 20시간 번조하는 과정
10/25(토)~26(일)	요출 및 손질
11/1(토)	요출 및 시유 -가마에서 초별된 그릇을 꺼내어 유약처리를 하는 과정
11/2(일)	재임 -재별구이를 하기 위해 시유된 기물을 가마에 넣는 과정
11/4(화)~5(수)	재별구이 -1300도에 약 20시간 번조하는 과정

56) 문경 도자기 박물관, dojagi.gbm.go.kr/open.content/ko/community/notice/?i=38395



〈그림 10〉 문경 도자기 박물관-망대이가마⁵⁷⁾

이처럼 미술관과 박물관은 작품관람과 함께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을 통해 단편적인 도예교육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 지역 공방, 체험학습장, 전시장은 중학교 미술교육과 적극적으로 연계될 때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룰 뿐 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적이고 입체적인 체험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필자는 조사를 통해 아직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는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예활동 체험학습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예술의전당, 소마미술관 등 서울시를 대표하는 대형 전시관들은 현재 유아 및 어린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회화, 감상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감상교육이 일부 전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비해 적었고, 내용도 평면적 표현 활동이나 감상활동이 입체 표현 활동보다 더 많았다. 미술관과 박물관이 문화·예술의 발전과 함께 교육적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중등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예를 포함한 입체표현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57) 문경 도자기 박물관, dojagi.gbmgo.kr/

V. 감성교육을 위한 도예 활동 프로그램 제안

듀이는 감성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요소로 ‘흥미’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주체의 대상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⁵⁸⁾ 흥미는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오관을 통해 감각적으로 반응하며 느낄 수 있다. 또한 작품의 표현이 창의적이거나 독특할 때 그것을 감상하면서도 느낄 수 있다. 이로서 학생은 그 대상과 기법에 대해 깊은 이해에 다다르고 미술활동의 즐거움을 느끼며 감성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도예활동의 표현과 감상 영역에서 흥미의 요소를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학생이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 재료의 이해, 도구의 사용 방법, 구상의 과정이 흥미로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1. 단원연구

1) 단원명

〈표 23〉 도예활동 프로그램-단원명

대 단 원	표현 및 감상
중 단 원	입체표현으로 나타내기
소 단 원	조형도예를 통한 감성표현
대 상	중학생
특이사항	4차시 / 90분씩 4차 진행

58) 노상우, “감성담론과 그의 교육철학적 함의”, **교육철학연구**, 제34권 제1호 (2012.3): p.86.

2) 단원 설정의 이유

중학생은 감성적 발달과 인지적 발달이 고루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점토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그 발달을 이루기에 용이하며 창의성 신장과 전인적 인간으로 교육하기에 적절한 재료이다. 창작의 과정에서 도예기법을 익히고 조형요소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단원을 설정하였다.

3) 단원의 지도 목표

<표 24> 도예활동 프로그램-지도 목표

단 원 의 지 도 목 표		
이 해	지 식	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감정을 이해한다. ▶ 감정을 입체적 대상으로 이해하고 구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토의 특징을 안다. ▶ 점토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표현한다. ▶ 도예 기법을 배우고 익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의 자아에 집중한다. ▶ 타인의 감정 표현과 의견을 수용한다.

4) 차시별 지도 내용 및 전개

〈표 25〉 도예활동 프로그램-차시별 지도내용

단계	지도 내용 및 전개	
학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 전기물레, 가마, 점토, 유약, 안료 · 교사 : 참고작품(사진자료, 영상물, 입체작품) · 학생 : 교과서, 필기도구, 드로잉북, 조각도구, 앞치마, 등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을 만지며 재료의 특성을 이해한다. · 도예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생활용품과 예술작품을 감상한다.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한다. · 도자예술의 정의와 제작과정을 이해한다. ·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1차시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한다.
	2차시	전기물레를 이용하여 창작활동을 한다.
	3차시	초벌기물에 유약과 안료를 이용하여 채색한다.
	4차시	만들어진 도예 작품을 비교 감상한다.
평가	평가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는가? · 표현 의도와 기법이 창의적이고 독창성이 있는가? · 학습 준비와 태도가 성실했는가? · 작품을 소중히 여기며 주변 정리를 잘 하였는가? · 작품 감상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였는가?
	평가 방법	실기 평가

2. 차시별 학습 지도안

1) 1차시 학습 지도안

중학생의 감성 발달을 위한 도예 활동 프로그램의 1차시 내용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내면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많은 예시작이 필요할 것이다. 수업시 작품의 예시를 다양하게 수집, 선정하여 보여주고 그 작품에 해당하는 기분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언어도 제시해야 한다. 이후 자유로운 연상을 통해 아이디어스케치를 한 뒤 점토를 주먹 크기만큼 떼어 주무르고 만지며 그 재료의 이해를 돕는다.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에서는 학생이 재현적인 표현이든 비재현적인 표현이든 제한을 두지 않고 표현하도록 하여 학생이 감성을 표출하는 데에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26〉 1차시 학습 지도안

단원	Ⅱ. 표현	대상	중학생
본시 주제	내면의 세계 표현하기	차시	1/4
학습 목표	① 자신이 느낀 감정을 재현 또는 추상적으로 구상한다. ② 점토의 특성을 이해한다.		
학습 자료	학급 : 점토(백자토) 학생 : 필기도구, 드로잉 북 교사 : 참고자료(사진자료), 컴퓨터, 빔 프로젝터		
학습 형태	모둠별 학습, 개인 구상 및 실기 학습		


학습 단계	학습 내용 및 활동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준비·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자료를 감상하고 작가의 내면세계를 이해한다. · 제시된 자료의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감정을 단어로 표현해본다. <div data-bbox="467 781 858 1061"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467 1124 858 1368" data-label="Image"> </div>	25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의 감정과 감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진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59) Baked Pottery, "2013 디자인 뮤지엄 레지던시: 아이덴티티", (2014. 12. 23), (<http://bakedpottery.tistory.com/archive/201312>)

60) 상계문.

61) SeMA보도자료-카오스-여선구, "카오스-여선구展_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SeMA순회전" (2014.3.14), (http://spp.seoul.go.kr/saupso/seoulmoa/notice/news_report.jsp?&act=VIEW&boardId=191)

62) 상계문.

	 <p>61)</p>  <p>62)</p>		
<p>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둠별로 이야기 해본다. · 자신의 경험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을 골라 당시의 감정을 드로잉으로 표현해본다. · 점토를 주먹 크기만큼 떼어 그 감정을 표현해본다. 	<p>45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단어와 어울리는 조형 요소를 이미지 자료로 제시한다. · 재현표현, 비재현 표현 중 어떤 것이든 제한을 두지 않고 표현하도록 한다. · 감성을 자극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토를 편편하게 눌러 다음 차시에 채색할 판을 만든다. (약간의 입체표현도 허용한다) 		<p>표현을 극대화 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시 때 채색하는 활동의 예시작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는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은 어떤 것인지 모듈별로 이야기 한다. · 아이디어 스케치와 점토판을 보관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차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

2) 2차시 학습 지도안

감성표현 발달을 위한 도예프로그램의 2차시 지도 내용은 전기 물레를 통해 그릇의 형태로 만든 기물을 창의적으로 변형시키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전기 물레를 이용한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체험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며 학습에 대한 흥미를 돋울 수 있다. 2차시의 학습활동은 교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차시로 물레의 시범과 함께 학생들이 모두 물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만드는 활동이 아니므로 두께가 고르지 않고 형태가 다소 비틀어지더라도 표현에 지장이 없음을 유의한다. 학생들이 물레를 통한 도예활동으로서 촉각적 경험과 감성표현을 신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도한다.

먼저 컵 형태의 기물을 만들고 이 컵의 형태를 자기 자신으로 설정하여 지난 차시에 구상하였던 스케치를 바탕으로 표현을 한다. 흙을 이어붙이거나 기물의 형태를 만져서 변형시킬 수 있고, 조각 도구를 이용해 무늬를 새겨 넣을 수 있다. 물레 작업 시 수분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품이 갈라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돕는다.

물레 작업 이후에는 실기실을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도록 지도하며 이것을 평가의 영역에 넣고, 뒷정리 또한 작업의 과정임을 가르친다. 모둠별로 가마소성을 돌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당번 모듬을 지정하고, 기물이 모두 건조된 후에 700~900도로 초벌구이 한다.

〈표 27〉 2차시 학습 지도안

단원	Ⅱ. 표현	대상	중학생
본시 주제	도예 활동으로 감정 표현하기	차시	2/4
학습 목표	① 전기 물레 활동을 통해 도예 기법을 이해한다. ② 점토를 이용한 창작의 즐거움을 느낀다. ③ 자신의 심상을 입체물로 나타낸다.		
학습 자료	학급 : 전기 물레, 청자토 학생 : 아이디어 스케치, 스펀지, 물통, 조각도구, 앞치마 교사 : 예시 작품(입체 작품)		
학습 형태	실기 학습		

학습 단계	학습 내용 및 활동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준비·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전기 물레 시범을 본다. · 입체로 표현된 예시 작품을 보고, 구상한 스케치에 알맞은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20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미유발에 힘쓴다. · 흙을 골고루 반죽하여 공기를 뺀다.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물레를 이용해 컵 형태의 기물을 만든다. · 컵 형태의 기물을 자신이라고 설정하고, 지난 차시에 구상했던 스케치를 바탕으로 자소상을 표현한다. 	40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물레 이용시 교사가 도움을 준다. · 수분을 최소화하여 작품이 성형 시엔 무르지 않도록, 건조 시엔 갈라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구를 정리하고 주변을 청소한다. · 작품을 건조대에 놓고 서서히 건조시킨다. · 다음 차시 내용을 듣고 가마 소성 당번을 정한다. 	30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기실이 전체적으로 깨끗하도록 지도한다. · 가마 당번은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학급 원 모두가 소성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3) 3차시 학습 지도안

감성 발달을 위한 도예활동의 3차시 학습 내용은 유약과 안료를 이용한 채색 활동이다. 학생이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감정을 어떤 색의 유약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다양한 유약시편과 사진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20>은 여러 가지 고화도 유약과 핸드 페인팅 재료의 색상을 나타내는 시편이다. 유약에 따라 균열을 나타거나 광택이 없는 등 다양한 표현을 연출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다양하게 준비한다.

감정의 특징을 잘 살려 표현하도록 지도하고 그에 따라 시유 기법을 담금시유나 붓으로 칠하기로 지도한다. 또한 시유를 마치면 기물의 아랫부분에 묻은 유약을 스펀지로 닦아서 가마소성시 기물이 붙지 않도록 주의점을 지도한다. 활동을 마치면 기물들을 1200도 이상으로 재별구이한다.



<그림 11> 핸드페인팅 재료 및 고화도 유약⁶³⁾

63) 석산요업, <http://석산요업.com/>

〈표 28〉 3차시 학습 지도안

단원	Ⅱ. 표현	대상	중학생
본시 주제	초별 기물에 채색하기	차시	3/4
학습 목표	① 자신의 기물에 감정 표현과 어울리는 채색표현을 한다. ② 유약을 바르고 2차 소성을 함으로 도예과정을 경험한다.		
학습 자료	학급 : 핸드페인팅 재료(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검정), 고화도 유약(투명유, 유백유, 단풍유 등) 학생 : 초별구이 기물, 사포, 스펀지, 조각도구, 붓, 앞치마 교사 : 참고자료(사진자료, 유약 시편)		
학습 형태	실기 학습		

학습 단계	학습 내용 및 활동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준비·동기 유발	· 참고 자료를 통해 2차 소성을 마치면 유약의 색채가 어떻게 표현되어 발색하는지 이해한다.	25 분	· 시유 기법을 알려주고 유약이 섞이지 않도록 지도한다.
활동 1	· 1차 소성된 기물을 다듬는다. · 교사가 제시한 유약 중 표현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시유한다. · 기물 바닥을 스펀지로 닦고 건조대에 놓는다.	20 분	· 유약이 잘 흡수되기 위해 사포질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한다.

<p>활동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소성된 백자초 소지에 구상해놓은 스케치를 활용하여 채색해 표현한다. · 투명유로 시유한다. · 기물 바닥을 스펀지로 닦고 건조대에 놓는다. 	<p>25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을 표현했던 키워드를 상기시키고 어울리는 색채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p>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구를 정리하고 주변을 청소한다. · 다음 차시의 내용을 듣는다. 	<p>20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차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 가마 당번과 함께 활동1,2의 기물을 2차 소성한다.

4) 4차시 학습 지도안

감성 발달을 위한 도예 활동의 마지막 차시 지도내용은 감상 영역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감성의 중요한 요소인 ‘공감’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먼저 학생은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감상활동지에 내용을 작성한다. 자신의 작품은 나의 어떤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그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어떤 조형적 요소를 사용했는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이 힘들었고 무엇이 좋았는지 등을 작성한다.

다음은 모둠별로 자신의 작품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설명하도록 지도하여 활동에 참여한 모두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언급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며 평가한 뒤 활동지에 적는다. 모둠별로 대표 감상지를 선정하여 발표한 뒤 마무리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감상 영역이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학생의 감성이 드러나고 그것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능력을 기르는 참된 감성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9〉 4차시 학습 지도안

단원	Ⅲ. 감상	대상	중학생
본시 주제	도예 작품 감상하기	차시	4/4
학습 목표	①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며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을 기른다. ②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감상 기록지를 작성한다.		
학습 자료	학생 : 도예 완성 작품, 필기구 교사 : 감상활동지, 평가자료		
학습 형태	개별/모둠별 감상 학습		

학습 단계	학습 내용 및 활동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준비·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살펴보며 조형적 특징을 이해한다. · 감상 활동지에 자신의 작품의 특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원리의 요소를 지도하고 예시로 나타내줌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p>장을 설명하여 적는다.</p>		<p>작품 설명에 응용하도록 한다.</p>
<p>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로 돌아가며 자신의 작품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주제(감정) - 표현요소/기법 - 작품을 만들며 좋았던 점/어려웠던 점 · 친구의 작품 중 인상깊은 작품을 하나 선정하여 적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주제 - 작품이 인상깊은 이유 - 작품의 느낌 - 친구의 감정이 잘 드러났는가? 	<p>40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적이고 즐거운 활동으로 유도한다.
<p>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로 대표 감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 발표에 대해 질의 · 응답하고 교사의 총평을 듣는다. 	<p>20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Ⅵ. 결론 및 제언

감성의 발달은 이성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디지털 산업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개인의 감성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서교육보다 지식교육에 치중되어 있던 국내 교육계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병폐를 인식함에 따라 감성교육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중학생은 인지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래 직업을 탐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해 능력일 것이다. 학계의 여러 연구와 조사를 통해 학교생활의 만족과 행복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성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현재 초·중등학교는 감성교육 방안을 모색하며 일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교육계는 국제적인 감성교육의 흐름엔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실행되는 감성교육은 공식적인 이론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식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아, 학교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한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 필요성에 비하여 실제적 교육 방법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감성교육이 교과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화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미술 교육에서도 공교육과 체험학습에 있어 도예교육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감성을 발달시키기에 적합한 활동이다. 그러나 점토라는 물성이 갖는 특징과 가소성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발달을 가져다 줄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에서 제시하는 재료의 이해와 표현 기법의 내용

은 제한적이었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지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중학교 미술 교과서들 중에 일부는 특정 영역으로 치우쳐져 불균형적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 시기의 도예교육과 감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감성 발달을 도모하는 도예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수분을 포함한 점토를 만지고 주무르는 것, 전기 물레 기법을 체험하고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은 재료와 기법의 활용을 극대화 하는 활동으로서 그 과정만으로도 촉각적 감성과 자유로운 발상을 표현하기에 좋다. 제시한 프로그램이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 만들어졌으나 실제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는 제한점이 따르며, 모든 중학교 미술교육 현장에서 보편적인 도예 활동으로 진행되기엔 시설 부족의 한계점이 있다. 학생들의 감성표현 발달에 효과적이고 실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도예 활동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과 전문 인력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미술관의 도예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기와 성인기 중간에 위치하여 정서적 · 신체적 성장을 이루는 중학생들이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아울러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 사회의 미술 속에서 오랜 시간이 걸려 창조되는 도예를 통해 학생들이 균형 있는 삶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교과서〉

- 김선아 외 4인(2014). **중학교 미술**. 제2판. 서울: 천재교육.
김영길 외 5인(2013). **중학교 미술**. 서울: (주)미래엔.
김용주 외 4인(2013). **중학교 미술**. 서울: 비상교육.
김인규 외 9인(2013). **중학교 미술**. 서울: 미진사.
박동진 외 9인(2013). **중학교 미술**. 서울: 형설출판사.
심영옥 외 5인(2013). **중학교 미술**. 서울: (주)교학도서.
연혜경 외 2인(2013). **중학교 미술**. 서울: 천재교과서.
이경애 외 3인(2013). **중학교 미술**. 서울: (주)아침나라.
이주연 외 5인(2013). **중학교 미술**. 서울: 금성출판.
장선화 외 2인(2013). **중학교 미술**. 서울: 두산동아(주).

〈단행본〉

- 강민기 외 3인(2011). **클릭, 한국미술사: 빛살무늬토기에서 모더니즘까지**. 서울: 예경.
김성숙 외 8인(2007).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학지사.
김재은 · 홍순정(2012). **창의성과 감성교육**. 서울: 창지사.
모인순(1995). **점토혁명**. 서울: 보문당.
박휘락(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서울: 시공아트.
서길용(1994). **도자실기**. 서울: 조형사.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 정지은 외 3인(2009). *아이의 사생활*. 서울: 지식교육.
- 한국심성교육개발원(2009). *심성계발을 위한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제2판. 서울: 한국심성교육개발원.
- 한길홍 외 4인(2009). *도자조형예술*. 서울: 미진사.
- 홍영미 외 5인(2013). *교육을 바꾸는 힘, 감성교육: 학교폭력,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서울: 즐거운학교.
- Carol Strickland(2010). *클릭, 서양미술사: 동굴벽화에서 개념미술까지*. 김호경 (역). 서울: 예경.
- David Walsh(2011). *Why do they act that way*. 곽윤정(역). *10대들의 사생활: 부모가 놓치고 있는 사춘기 자녀의 비밀*. 서울: 시공사.
- Tom Anderson · Melody K.Milbrandt(2007). *Art for Life: Authentic Instruction in Art*. 김정희 외 (역), *삶을 위한 미술교육: 미술의 실제적 교수 · 학습을 중심으로*. 서울: 예경.

<정기간행물>

- 김명란(2012). 21세기 도자공예의 사회적 역할 연구. *論文集*, vol.26 No.-, pp.1-11. 수원대학교.
- 노상우(2012). 감성담론과 그의 교육철학적 함의. *교육철학연구*, 제34권 제1호, pp.71-97. 한국교육철학학회.
- 모인순(2012). 공예교육의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도자학연구*, Vol.8 No.2, pp.35-50. 한국도자학회.
- 모인순(2013). 미술교과서의 공예교육 분석-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Vol.9 No.2, pp.3-17. 한국도자학회.

양종국 · 이승국(2004). 학교의 감성교육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7호, pp.209-227.

최상덕 외(2014). ‘수업의 품격’ 높이는 자유학기제. *행복한 교육*, vol.338, pp4-13. 교육부.

<학위논문>

김태연 (2006). 중국, 일본, 유럽도자를 통한 한국도자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박솔란 (2011). 중등미술교육의 현황 및 전통회화에 관한 수업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유미선 (2014). 중등미술 교육에서 도자공예 수업에 관한 연구: 2009개정 교육과정 미술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윤혜림 (2014). 전인 미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낭만주의 미술교육론을 토대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이진복 (2014). 조형도예표현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이혜미 (2014). 중학교 미술에서 감상교육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 2009개정 미술교과서 비평영역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정영진 (2009).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법 고찰: 플루트교육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웹 사이트>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국립현대미술관 www.moca.go.kr/
문경 도자기 박물관 dojagi.gbm.go.kr/open.content/ko/
부산도예교육센터 blog.naver.com/artdean
북한강 도자기마을 blog.naver.com/shin01225
삼성미술관 리움 leeum.samsungfoundation.org/
소마미술관 www.somamuseum.org/
손그릇 www.손그릇.kr/
수요로 보천도예창조학교 www.suroyo.kr/
에보박물관 www.aebo.co.kr/
영은미술관 www.youngeunmuseum.org/
예술의전당 www.sac.or.kr/
유스내비 www.youthnavi.net/
지앤아트스페이스 www.zienart.com/
헤이리 도자기 체험학교 www.ceramicschool.co.kr/

<기타>

- 염철현(2012). 미국 초·중등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감성적 능력함양을 위한 학습법』 소개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CR2012-01-4.
- 한국.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 교육부(2013).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서울: 교육부.

ABSTRACT

A Suggested Ceramics Artwork Program for Emotional Education

Hee-jin Song

Department of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Ceramic artwork is closely related with our lives as a form of three-dimensional artistic expression, and is an essential part for developing aesthetic senses and creative capabilities.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s related with ceramic art activities in adolescence are suitable for ones artistic perspective and providing emotional satisfaction. Formative ceramic arts activities are not only useful for practical reasons, but also for free exercise that can help one grow as a holistic human.

In particular, taking on vocational training at middle school is more important than at high school for public education and work studies, and ceramic artwork can be an essential activity for diversifying people's experiences. However, despite its great characteristics, the plasticity that can allow creative and holistic development, ceramic artwork is often not viewed

as an important part of education.

Upon analyzing the 2009 revised art textbook, it was noted that creative expression via clay with inventive activities were still not sufficient, and even on the part about crafts involving ceramic art, the pages used to express ceramic techniques were of little importance and had poor content. In addition, content about real life products filled more space than ceramic art's ability to enable of creative expression. It has been apprehended that such a composition of content can provide the incorrect notion that ceramic art is merely traditional art, even though it can develop the ability to appreciate diverse and advanced modern ceramic art.

For the emotional education that modern education requires, this study analyzes ceramic education and middle school student work studies, demonstrates the need for ceramic art education, and provides an emotional ceramic art program for practical education.

I hope that the program that this study suggests can help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between childhood and adult, and who must mature both physically and emotionally. Utilizing ceramic art education can be a method of becoming a more creative human via various artistic experiences. In addition, for such a fast-changing modern art, students can balance their lives through ceramic art, which requires patience to make products.